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앙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융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세금 보고
703-961-8811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8994호
Tuesday, April 16, 2024 A

사상최초… 전직 대통령 트럼프, 형사 재판에 서다

전직 미국 대통령 신분으로는 사상 처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한 달 이상, '적진'인 뉴욕 맨해튼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9시 30분경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15층 법정에 도착했다. 무거운 표정으로 취재진을 향해 입을 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사건은 법학자들도 말이 안된다고 말하는 '정치적인 기소'이며 '미국을 향한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그는 "나는 여기 있는 게 자랑스럽다"면서 "이것은 진정 정적을 향한 공격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인물은 앨빈 브래그(49) 뉴욕시 맨해튼 지방검사장. 민주당 소속인 그는 '트럼프 기소'를 검사장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지난 2021년 당선됐으며, 수년전 '트럼프 파운데이션'에 대한 민사소송 지휘부터 줄곧 트럼프와 악연을 이어왔다. 브래그 지검장은 취임 초기 검사들에게 살인이나 성범죄 등 초강력 범죄가 아닌 이상 징역형을 구형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현재 맨해튼의 치안악화를 불러온 인물로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승리했던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며 34개 혐의로 기소 당해 이뤄졌다. 그러나 연방법인 선거법 위반과 뉴욕주 법인 기업 문서 조작을 결합한 이번 기소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인만큼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유죄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굳은 표정으로 맨해튼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로이터]

반면에, 유권자 10명 중 9명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신 '바이든'을 선택했던 뉴욕 맨해튼에서 구성되는 배심원단이 법적인 증거보다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막겠다는 정치적인 동기로 유죄 판단을 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일부 법 관계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재판 첫날인 이날부터 첫 주간에는 12명으로 이뤄지는 배심원단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선정 과정에서 이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재판 시작과 함께 트럼프 측 변호인은 담당 재판관인 후안 머천 판사의 딸이 민주당의 정치 컨설턴트로 일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머천 판사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거나 관할 법원을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곳으로 바꾸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으며, 이런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사적인 재판이 개시된 이날 맨해튼지방법원 인근에는 새벽부터 많은 취재진이 몰려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일부 취재진은 방청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날 밤부터 줄을 섰다. 형사사건 피고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6~8주로 예상되는 재판 일정 내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예상되며,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중 4회 열린다. 박세용 기자

주택 리모델링 비용 60% 뛰었다

작년 평균 2만4000불 지출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영향

지난 3년 동안 주택소유주들의 주택 리모델링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택 리모델링을 끝낸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 US 하우즈 앤드 주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주택 개조 평균 비용은 2020년보다 60% 증가한 2만4000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리모델링 비용 증가를 주도한 것은 지출 규모 기준으로 상위 10%였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들 주택소유주는 8만5000달러를 지출했는데 2023년에는 15만 달러로 77%나 급증한 것이다. 또 응답자 절반 이상은 2023년 주택 개조에 2만5000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X세대가 리모델링에 가장 큰 비용을 썼다. 2023년 이들의 평균 리모델링 비용은 2만5000달러, 베이비부머 세대는 2만4000달러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리모델링 비용 증가 원인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상승을 꼽았다.

가장 선호하는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주방과 욕실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주의 27%가 주방을 개조했다. 이어 게스트 욕실과 기본 욕실이 각각 25%와 23%로 뒤를 이었다.

리모델링 공사 기간이 가장 긴 프로젝트는 주방으로 설계 및 공사 기간을 합쳐 평균 1년 3개월 정도 걸렸고, 뒤를 이어 욕실은 1년이 소요됐다. 이은영 기자

» 5면 '주택 리모델링' 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군사적 보복 외 이란 외교적 고립 옵션도 검토"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습으로 제5차 중동전쟁이 우려되는 가운데 확전 여부의 열쇠를 쥔 이스라엘이 언제 이란에 대한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스라엘 현지에선 전시내각이 이란 보복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면서도 시기와 방법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15일 외신들에 따르면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의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13일 밤 350여 발의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의 군사시설을 전격 공습한 이래 이스라엘의 반격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반격은 훨씬 더 파괴적인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전혀 대응하지 않거나 너무 약하게 대응하면 억지력이 약화돼 이스라엘과 다른 국가들이 향후 이란의 공습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 전시내각 각료 다수는 이란에 보복한다는 원칙엔 찬성하면서도 시기와 방법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백일현 기자

» 2면 '이스라엘' 로 이어집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 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팔찌
• 보석 세공,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an open door to a life changing grace
www.opendoorpc.org
열린문장로교회
OPEN DOOR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이취임 감사예배
1984년 1월 1일 창립 이후,
지난 40년 동안 열린문장로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33년 동안 본 교회를 섬기신 김용훈 목사님의 이임과
김요셉 목사님이 5대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담임목사 이취임 감사예배에
성도 여러분과 목사님, 지역 교회를 초대합니다.
열린문장로교회
OPEN DOOR PRESBYTERIAN CHURCH
INVITATION
2024.04.28 (주일)
오후 4시 30분 | 열린문장로교회
이취임 감사예배후 친교실에서 식사가 준비됩니다.
* 이 신문광고로 초대장을 대신합니다. *
3001 Centreville Rd. Herndon, VA 20171 t. 703.318.8970

이란 공격, 아이언돔에 막혔지만 … 동맹국엔 '강한 이란' 이미지 과시

WP "공격 실패로만 봐선 안 돼"

이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밤 300기가 넘는 자폭 드론과 탄도·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방공체계)과 미국·영국 공군에 의해 99% 요격됐다. 다수 서방 언론은 '이란의 군사적 손실이자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평가했지만, 이란이 얻은 것 또한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은 14일 이란의 공격이 '실패'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큰 실수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충분한 사전 경고 후 대규모 공격을 감행해 ▶이스라엘의 선방을 유도하고, 거의 피해를 보지 않아 보복과 확전에 대한 책임을 피해 갔으며 ▶역내 동맹들에 세력을 과시하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이스라엘·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간 이란은 대리 세력을 통해 이스라엘을 간접 타격해 왔지만, 이번 공격으로 자국 주권을 침해하면 직접 보복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자국민과 역내 동맹국을 향해 '강한 이란'의 이미지를 각인시킨 것도 성과다. 이날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침략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수도 테헤란 시내에는 군중이 쏟아져 나와 국기를 흔들며 "이슬람 전사, 만세"를 외쳤다.

이란이 공격 시간을 밤으로 선택한 것 역시 '상징적 보복'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13일 밤 테헤란의 밤하늘을 가르며 드론과 미사일이 발사되자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환호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 감행 72시간 전에 인접 국가들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이란은 스위스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고 그런 차원에서 그들과 소통할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기자

중동 위기에, 원화값 17개월만에 최저

이란의 대(對)이스라엘 공습이 불러온 '중동 불안'에 국내 금융시장이 들썩였다. 원화값은 17개월 만에 달러당 1380원 선을 뚫었고, 코스피는 0.42% 하락했다. 미국·중동 변수에 따른 강(强)달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 '1달러=1400원'에 도달할 가능성도 커졌다. 외환정책 당국은 필요할 경우 안정화 조치에 나서겠다며 시장 개입을 시사했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장 대비 8.6원 내린(환율은 상승) 1384원으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22년 11월 8일(1384.9원) 이후 최저점이다. 지난달 11일 달러당 1310.3원까지 올랐던 원화값은 이달 들어서만 35원 가까이 내리는 등 빠르게 내려앉고 있다.

가팔라진 원화 약세엔 불붙은 중동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이달 들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스라엘이 지난 1일(현지시간)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고,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란은 13일 밤 이스라엘 본토에 사상 첫 공격을 진행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재차 보복할 거란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국채 금리와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유가와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는 식이다. 이날 금융시장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42%(11.39포인트) 내린 2670.43에 거래를 마쳤다. 일본 닛케이지수(-0.74%), 대만 자취안지수(-1.38%) 등도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 선호 경향이 뚜렷하다. 고유가,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거란 전망도 강달러를 부추긴다. 주요 6개국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1973년=100)는 12일 기준 106선에 올라섰다(106.04).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원화값이 달러당 14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화값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간 건 지금껏 세 번밖에 없던 일이다. ▶1997년 12월~1998년 6월 ▶2008년 11월~2009년 3월 ▶2022년 9~11월 등이다. 역대 세 번의 '역대급 원저(低)' 기간 중 어느 때를 닮았느냐에 따라 향후 환율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1차 원저 때인 1997년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에 따른 외환위기가 오면서 원화 가격은 곤두박질쳤다. 단기외채 비율 역시 1997년엔 657.9%로 높았다. 국가신용등급은 대폭 하락했고, 국채 금리는 올랐다. 달러는 가만히 있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국내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 파고가 몰아쳤다.

2008년 찾아온 2차 원화 급락의 방아쇠를 당긴 건 미국이다.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한국엔 유동성 위기가 왔다. 국제 금융시장의 외화 차입이 막히면서 정부가 은행 대외채무 지급 보증에 나서고, 외환시장에 100억 달러 이상을 공급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했다.

원화가 세 번째 1400원대를 기록한 건 2022년 9월로 비교적 최근이다. 미국이 금리를 단번에 크게 올리는 가파른 긴축에 나서면서 달러 가치가 오른 영향이다.

이번 원화값 하락 역시 2022년과 유사하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국내 문제라기보단 미국 금리 인하 전환에 대한 기대가 뒤로 밀렸다는 게 달러 강세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아닌 데다 외환보유액도 충분하다.

하지만 급격한 원화값 하락은 수입 물가 상승, 외국인 투자자 유출 등 국내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외환당국이 움직인 이유다.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향후 진행 양상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동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원화 가치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이스라엘 증시가 이란의 공격 후에도 크게 출렁이지 않는 등 시장에선 향후 정세를 관망하는 경향이 강하다. 확전만 되지 않으면 원화값이 1350원대까지 올라설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세종=정진호 기자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한 이란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출격을 준비하는 이스라엘군의 F-15I 라암 전투기. [UPI=연합뉴스]

» 1면 '이스라엘' 에서 이어집니다

이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 등 전시내각 각료 5인이 만나 3시간 넘게 이란의 폭격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CNN은 15일 두 명의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이스라엘 전시내각이 (전날에 이어) 15일 오후 소집돼 이란 대응 시기와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며 "잠재적인 군사적 대응 외에도 이란을 세계 무대에서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적 옵션도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어 "간츠 대표는 이란 공격에 대한 더 빠른 대응을 촉구했고, 네타냐후 총리는 결정을 내리는 데 제동을 걸고 있다"며 "간츠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에 대한 대응을 늦출수록 그러한 공격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시내각 회의에서 반격 계획을 논의했으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반격 계획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강도를 낮출지언정 어떤 형태든 보복에 나설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여전하다.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해도 300발이 넘는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퍼부은 이란의 행동에 아무런 대응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게 전시내각 각료들의 시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 극우 연정 내 주요 인사들은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전시내각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내각으로선 이번 이란 공습 때 미국·영국·프랑스·요르단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발사체 중 99%를 격추하는 데 큰 도움을 준 만큼 동맹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에 이어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이란을 겨냥한 어떤 공세 작전에도 참여하지 않고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에도 핵심 외교라인과 별도 회의를 거쳐 긴급 소집된 G7(주요 7개국) 정상들과의 영상회의에 참석했다. G7 정상들은 회의 직후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연대와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우리는 상황을 안정화하고,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피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백일현 기자

워싱턴 날씨 (°F)

4월 16일(화) 75~55

17일(수)	67~58	20일(토)	70~54
18일(목)	71~53	21일(일)	58~48
19일(금)	72~56	22일(월)	64~48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MAX EXECUTIVES
12001 Lee Jackson Memorial Hwy, 2nd Fl Fairfax, VA 22033 (T. 703-318-0067)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고 **임황묵** 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해 주시고,
유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따뜻한 말씀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만나 뵙고 감사함을 표하지 못하여,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대신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따스한 마음을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가족 일동 -

유가족

부인 : 임현자
딸 : 임민숙
딸 : 임효숙
손녀딸 : Tiffany 지수 Anderson
손녀딸 : 양다빈
손녀딸 : 양수빈

데스카노 검사장 보호명령, 왜?

SPECIAL STORY

VA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 "본인 및 가족 위협 인물 대상"

스티브 데스카노(사진) VA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페어팩스 카운티 일반법원은 지난 1일 데스카노 검사장이 제출한 신원미공개 남성을 대상으로 신청한 긴급 접근금지 명령 및 보호명령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협박과 저주, 신체적 위협이 계속되자 정식 명령 절차에 들어갔다.

용의자는 타주 거주자로, 2023년 1월부터 정치집회에 등장해 데스카노 검사장을 지지하고 정치자금도 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년 전부터는 텍스트 메시지, 전화, 이메일을 통해, 때론 집무실에 직접 등장해 위협을 가했다.

데스카노 검사장은 "용의자가 애초 나와 점심식사를 하는 등 정치적 지지자인 척 했으나 사실은 자신이 직면한 모종의 범죄에 대해 기소를 면하기 위한 수작"이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3월17일에 열린 한 정치 집회에 나타나 데스카노 검사장을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지칭했다. 데스카노 검사장이 떠나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 시간 쯤 뒤에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당신은 거짓말쟁이, 치매걸린 사람"이라고 비방했다.

지난 3월23일에는 "데스카노 검사장의 영혼이 오늘 날씨처럼 어둡고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며 정의가 당신을 곧 심판하길 바란다"는 텍스트 메시지를 발송했다. 28일에는 "당신은 나로부터 일말의 존경심도 받을 수 없으며 결국 감옥에 처박힐 것"이라고 악담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검사장의 부인 명의로 우편물을 발송해 부인과 아이를 위협하기도 했다. 그리고 31일에는 "당신은 사악하며 잔인하다. 진실하지 않으며 증오심이 들끓는다. 신은 반드시 너를 처단할 것이다. 눈에는 눈! 너는 네가 한 일에 때문에 반드시 보복당할 것이다"라는 메시시를 발송했다.

그는 4월1일 법원으로부터 긴급 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 긴급명령이 너를 더욱 곤경에 처하게 만들 것이고, 버지니아의 모든 시위에 참석해 네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연방법원 판사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로 연방마샬국(US Marshalls)의 수사를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삶과 추억

나눔 실천의 삶 살아온 기업인

이덕선 외대해외동문회 이사장 84세 별세 … 모교 40억원 기부

앨라이드 테크놀로지 그룹 창립자 및 고문인 이덕선(사진) 한국외대 해외동문연합회 이사장이 지난 11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이덕선 이사장은 한국외대 해외동문연합회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을 지냈다. 이덕선 이사장은 1966년 미국으로 건너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시작, 1986년 앨라이드 테크놀로지 그룹(ATG)을 설립, 미국 국무부 전산망을 책임지는 기업인으로 성장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나눔은 결국 더 큰 결실을 맺는다'는 평소 철학에 따라 자신과 아내의 이름을 딴 재단인 'Matthew D. & Katherine H. Lee Foundation'을 설립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왔다.

이러한 공로로 2004년 한국외대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8년에는 메릴랜드 주 정부가 수여하는 '최우수 기업 100대 경영자상(Top 100 Minority Business Enterprise's Business Legend Award)'을 수상했다.

또 인류에 공헌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염원하며 12년간 거액의 장학금을 후원해왔다. 지난 2022년 한국외대에는 장학금 100만 달러를 추가로 기탁해 이덕선 이사장이 출연한 장학금 총액은 40억 원에 달한다.

유가족으로는 아내 캐서린 이씨와 두 딸 소피, 퍼트리샤씨가 있다. 장례미사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메릴랜드주 성 유다 성당에서 열렸다.

▶연락:(301)946-8200

김진표 국회의장 워싱턴 방문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주호영, 윤호중, 정진석 의원 및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워싱턴을 방문했다. 김 의장은 2박 3일 방문기간동안 대사관저 오찬을 시작으로 대한제국공사관 시찰, 홍희경 민주평통 상임위원 자택 만찬을 갖고 16일(수) 한국전참전기념비헌화행사, 동포간담회, 17일(목)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새로운 70년을 향한 한미동맹의 비전'을 주제로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양국 의회 역할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사진은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김진표 국회의장(앞줄 오른쪽 네번째)과 방문단 및 환영객들.

키브릿지 붕괴사고, FBI 수사 착수

출항 전 결함 사실 인지 여부 관건

연방수사국(FBI)이 지난달 발생한 볼티모어 키 브릿지 붕괴사고에 고의적인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FBI는 지난 15일 오전 사고선박 달리호에 승선해 선원을 대상으로 탐문 및 증거 확보 수사에 들어갔다. FBI는 선원들이 선박에 결함 혹은 고장 사실을 알고도 볼티모어 항구에서 출항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FBI 볼티모어 지부는 "법원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랜든 스콧 볼티모어 시장은 "로펌 두곳과 파트너쉽을 맺었으며 선박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볼티모어 시티의 이같은 법률 대응은 FBI 수사는 물론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사고수사와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NTSB는 사고 직후 승선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전력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선박이 동력을 잃고 충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달리호는 3월26일 출항한 지 30분 만에 동력을 잃고 키 브릿지와 충돌했다.이미 여러 정황상 달리호 선체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달리호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은 수사를 마친 후 수사결과에 따라 신변인도 등의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우에 따라서 살인혐의 등도 적용될 수있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다리 위에서 일하던 도로보수 인력 6명이 사망했다. 달리호의 최종 기항지는 스리랑카로, 선원 대부분은 인도 등 남아시아 출신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숙명여대 미주총동문회 행사

숙명여자대학교 미주총동문회(총회장 이정희)가 지난 12일부터 2박3일간 워싱턴을 방문해 제 11회 총회 및 행사를 개최했다. 미 전역 동문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버지니아 타이슨스 아처호텔에서 묵으며 총회를 비롯한 숙명인의 밤 장기자랑, 명예졸업식, 친교를 나누었고 DC 명소들을 관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장윤금 총장은 이정희 총회장, 석경숙 이사장, 김영란 수석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다음 총회는 2026년, 2년 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

김윤미 기자

해사 합격 한인, 국적이탈에 발목

18세 전 신청놓쳐…불이익 걱정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가 최근 해군사관학교 입학통보를 받았지만,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애를 태우고 있다. 얼마 전 한인 이모씨는 아들의 해사 합격 소식 이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관학교 입학이나 졸업 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들의 선천적 복수국적이탈이 필요해서다.

이씨는 "12학년 아들이 갑자기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했고 얼마전 입학 통보를 받았다"고 전한 뒤 "현재 19세인 아들은 18세 때 국적이탈 신청을 못 했다. 지금이라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힘들게 해군사관학교에 합격했지만 예외적 국적이탈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이씨 아들처럼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부작용으로 한인 2세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인 2세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이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청 전에 신청자 부모의 한국 혼인신고, 본인 출생신고도 완료해야 한다.

한인사회의 헌법소원 이후 지난 2022년 10월부터 한국 정부는 '예외적 국적이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8세 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위한 제도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예외적 국적이탈이 시행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신청 사례는 30건 정도다. 국적심의위원회는 이중 일부만 허가했을 뿐 대부분 심의 중이다. 예외적 국적이탈 제도는 신고가 아닌 허가제라서 자격이나 심의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신청 자격은 ▶외국에서 출생한 뒤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뒀거나 ▶6세 미만일 때 외국 이주 후 계속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와 ▶복수국적으로 인한 직업 선택의 제약이나 불이익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한편 지난 3월 동부지역 한인단체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미국 공직 진출이나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했다. 김형재 기자

구리 도둑, 맥아더공원 동상도 절도

지난달 25일 윌셔 길에 위치한 맥아더공원의 신문배달원 동상이 발만 남긴 채 사라졌다.(사진)

LA타임스에 따르면 LA경찰국(LAPD) 측은 보안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25일 오전 1시 30분쯤 두 대의 트럭과 형광 조끼를 입은 용의자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이 시 정부 근로자로 위장해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했다. 범죄자들은 동상의 발목 부분을 절단해 들고 달아났다.

신문배달원 동상은 조각가 폴 트루베츠코이의 작품으로 LA타임스의 전신 격인 신문출판사를 창립한 해리슨 그레이 오티스에 존경을 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다. 동상 도난에 대해 LAPD는 전담 태스크포스(TF)에 수사를 맡긴 상태다.

한편 최근 현금 값어치가 있는 금속 공공시설물 도난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9일 패서디나에선 100년이 넘은 청동 가로등이 다수 도난당한 바 있다. 1월 카슨에선 공동묘지 구리 명패 100개가 사라졌다. 우훈식 기자

성능경 작가 타운서 행위예술 해머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 실험미술 1960-70년대전'에 참가하고 있는 성능경 작가의 퍼포먼스가 13일 한인타운에서 열렸다. 백아트갤러리와 로빈 화진 윤김재단에서 주관한 행사에서 성능경 작가는 참석자들을 축복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김상진 기자

"교단이 교회 건물 팔아 수익만 챙겨" 비난

미국장로교단 한양장로교회 일방 폐쇄 파장

한인 교계 "소수계 무시한 것"
전교인 5명 타교회 안내 안해

소수의 교인만 남았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46년 된 한인 교회를 폐쇄하고 건물까지 매각해버린 미국장로교(PCUSA)의 행태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인 교계 관계자들은 이번 처사가 한인 이민 교회 등 소수계를 대하는 미국 교단의 인식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라고 했다.

지난 1978년에 설립된 한양장로교회는 교인이 약 500명에 이를 정도로 샌퍼낸도 밸리 지역에서 한때 영향력 있는 교회였다.

미주성시화운동 공동대표인 송정명 목사는 "타교단이긴 하지만 교회 해산 과정을 보니 교단 노회가 한인 교인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든다"며 "특히 연로한 교인들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라도 한인 교계가 마음을 모아 그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게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장로교회 소속 교인들은 교회 해산 시 교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교단 산하 지역 노회, 대회 등에 계속 항소했지만, 기각만 당했다.

결국 교단 내 최상위 기관인 총회 사법전권위원회가 지난 7일 지역 노회 등의 결정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회 폐쇄를 재판을 통해 다루기로 결정하면서 한인 교인들의 억울함이 다소 풀어지게 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PCUSA내에서 조차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PCUSA 소속의 김기대 목사(평화의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노회가 한인 교회를 무시했던 것"이라며 "총회의 이번 결정은 지역 노회와 대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7일 총회 사법전권위원회가 발표한 판결문 내용을 보면 노회 관계자들이 한인 교인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폐쇄를 강행한 과정이 상세히 명시돼있다.

판결문에는 ▶법적 절차를 묻는 교인들의 질문에 '절차는 매우 길고 복잡하다'고만 답함 ▶교단 규정집 요청에 웹사이트에서 찾아보라고 답함 ▶통번역인이 노회 관계자의 연락처를 묻자 '요청 자격이 없다'며 거부 ▶교회 운영 재개를 요청했지만, 건물 매각 ▶수차례 서면으로 한 교회 구제 요청을 기각 ▶노회는 어떠한 청문회 기록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나열돼있다.

통번역을 통해 교인들을 도운 구승철씨는 "심지어 노회 측은 교회를 폐쇄하면서 남겨진 다섯명의 교인에게 다른 교회를 소개해주거나 그들을 돌보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영어도 제대로 못 하는 고령의 교인들만 남았으니 절차를 무시하고 교회를 폐쇄해버린 뒤 건물을 팔아 매각 수익금만 챙긴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 측은 판결문에서 노회와 대회의 처사를 두고 "항소인의 관심사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라며 "우리는 이 사건이 명백한 편견과 부정이 넘쳐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노회 측 변호인 중 한 명인 폴 천 목사는 12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나는 입장을 말할 위치가 아니다"라며 "노회가 교회 매각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다섯 명의 교인들은 교회 건물이 매각된 상황에서 총회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장열 기자

대학 입학생 졸업 비율 60% 에 불과

10명 중 4명은 중도에 포기
증가하는 학비가 주요 원인
학사 취득 아시안 가장 높아

대학 입학생 10명 중 6명은 졸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포기 이유는 학비와 생활비 등 재정적 부담 때문이다.

대학 학위 취득자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대학에 등록한 입학생 10명 중 4명은 졸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국립교육통계센터(NCES)가 2009년 고등학교 입학생 약 2만3000명의 교육 성과를 2021년까지 추적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에 등록한 학생 중 고등학교 졸업 후 8년 이내에 대학 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60%에 불과했다.

인종별로는 아시안의 학사 이상 학위 취득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8년 이내 학사 학위를 취득한 비율은 아시안이 56%로 가장 높았고, 백인(41.4%), 히스패닉(26.3%), 흑인(24.9%)이 그 뒤를 이었다. 석사 학위 취득 비율 역시 아시안이 10.7%로 가장 높았으며 백인(9%), 흑인(4.3%), 히스패닉(4.1%) 순이었다.

소득별 차이도 있었다. 학사 학위 취득 비율은 소득이 높은 가정의 학생일수록 높았다. 가정의 연소득이 11만5000달러 이상인 학생 중 54.5%가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7만5001달러~11만5000달러는 41.3% ▶5만5001달러~7만5000달러는 38.2% ▶3만5001달러~5만5000달러는 30.4% ▶3만5000달러 이하는 22.9%가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 수는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학생정보연구센터(NSCRC)가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 수는 7년 동안 늘다가 최근 2년 연속 줄었다.

2022~2023학년도 학사 학위 취득 학생 수는 194만1254명으로 2021~2022학년도 대비 3% 감소했고, 준학사 학위 취득 학생 수는 83만24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줄어 지난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시안 학사 학위 취득 학생 수 역시 2015~2016학년도 9만4688명에서 2020~2021학년도 14만4345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2022학년도 14만2827명 ▶2022~2023학년도 14만528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처럼 대학 졸업률이 낮은 것은 재정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관련 대출 전문기관 샐리매(Sallie Mae)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학부생 3명중 1명꼴로 중퇴를 고민하고 있다. 이중 31%가 중도 포기를 고려한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이외 동기 부여 부족 또는 삶의 변화(24%), 정신건강 관련 이슈(18%)가 그뒤를 이었다. 2023-2024학년도 4년제 사립대학교 평균 연간 등록금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5만6190달러였다. 4년제 공립학교의 평균 등록금도 2만4030달러로 작년보다 2.5% 더 늘었다. 교육 전문가들은 "대학생들이 늘어난 수업료, 교재비, 주거비, 생활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학비 부담이 커진 데 비해 졸업장이 주는 효용 가치가 낮아 대학을 중도에 그만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재선·윤지혜 기자

가족이민 발급일자 진전

국무부 5월 영주권 문호
취업이민 우선일자 동결

5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대폭 전진했다. <표 참조> 다만 취업이민의 경우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5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진했다.

가족이민 중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2월 8일에서 2015년 7월 8일로 5개월 전진했으며,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9월 8일에서 2021년 6월 1일로 9개월 가까이 전진했다.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15년 11월 22일에서 2016년 4월 1일로 4개월 이상 진전했다.

가족이민 중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9년 10월 1일에서 2010년 1월 1일로 움직였다.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7년 6월 8일에서 2007년 7월 22일로 한 달 넘게 진전했다.

가족이민 중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대부분 동결된 가운데,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에는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10년 3월 1일에서 2010년 6월 1일로 3개월 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가족이민 문호가 전진하는 추세를 보인 가운데, 취업이민의 경우 전 순위 문호가 답보 상태를 보였다. 취업이민의 경우 오픈 상태를 유지한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동결 상태를 보였다.

취업이민의 경우 앞서 발표됐던 4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전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한두달씩 전진한 바 있다. 4순위(종교 등 특수)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1년 가까이 전진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5월 문호에서는 문호가 동결 상태를 유지한 셈이다.

김은별 기자

2024년 5월 중 영주권 문호 괄호 안은 2024년 4월 우선일자, 자료:국무부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가족이민	1	2015년 7월 8일 (2015년 2월 8일)	2017년 9월 1일 (2017년 9월 1일)
	2A	2021년 6월 1일 (2020년 9월 8일)	2023년 9월 1일 (2023년 9월 1일)
	2B	2016년 4월 1일 (2015년 11월 22일)	2017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3	2010년 1월 1일 (2009년 10월 1일)	2010년 6월 1일 (2010년 3월 1일)
	4	2007년 7월 22일 (2007년 6월 8일)	2008년 3월 1일 (2008년 3월 1일)
취업이민	1	오픈 (오픈)	오픈 (오픈)
	2	2023년 1월 15일 (2023년 1월 15일)	2023년 2월 15일 (2023년 2월 15일)
	3	2022년 11월 22일 (2022년 11월 22일)	2023년 2월 1일 (2023년 2월 1일)
		2020년 10월 8일 (2020년 10월 8일)	2020년 12월 15일 (2020년 12월 15일)
	4	2020년 11월 1일 (2020년 11월 1일)	2020년 12월 1일 (2020년 12월 1일)
	5	오픈 (오픈)	(오픈)

하버드대서 탈북민 영어말하기 대회

[프리덤스피커즈인터내셔널(FSI) 제공]

북한인권단체 프리덤스피커즈인터내셔널(FSI)은 지난 13일 하버드대 화이자 강의홀에서 탈북민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탈북민 참가자들은 이날 대회에서 북한에서 겪은 인권침해, 장애인 인권, 중국 내 여성 인권, 탈북민으로서 정체성 등 자기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현실과 관련한 다양한 발표를 했다.

대회 우승자는 탈북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주제로 발표한 김명희씨에게 돌아갔다. 17세에 탈북한 김씨는 인신매매 등 중국에서 북한 여성이 겪는 인권침해 경험을 알려 관심을 모았다.

FSI는 2015년부터 매년 두 차례 국내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를 열어왔다. 미국에서 대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1면 '주택 리모델링' 에서 이어집니다

주택소유주가 가장 많이 구입한 품목은 페인팅(64%)에 이어 조명(52%) 순이었다. 조명 부문에서 야외 조명이 인기를 끌었다. 주택소유주 22%가 야외 조명의 업그레이드를 선택했고, 18%가 보안 카메라나 센서 같은 실외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다.

MZ세대가 야외 보안시스템을 자주 교체했으며 최신 홈 시큐리티 테크놀러지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주들은 또한 냉난방 시설에도 신경을 썼다. 난방 및 냉방 시스템에 대한 평균 지출은 각각 5500달러와 6000달러로 10% 증가했다.

리모델링 비용이 급증하면서 주택소유주들은 DIY(직접 하는 리모델링)나 소규모 리모델링 프로젝트와 같이 돈을 절약하면서 생활 공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은영 기자

미국 "이란으로부터 이스라엘 공격 사전 통보 받은 바 없어"

미국 정부는 지난 13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과 관련, 주변국과 미국에 사전에 공격 계획을 알렸다는 이란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이란측으로부터 공격에 대한 사전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일과, 관련 징후 및 예상은 있었지만 "(이란으로부터 대이스라엘 공격의)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한 통보는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전날 테헤란 주재 각국 대사들에게 "주변국과 미국에 공습 72시간 전 작전을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 로이터통신은 튀르키예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튀르키예에 이스라엘 보복 공습 작전이 이스라엘의 '영사관 공격'에 대응하는 제한된 목적일 뿐이라며 그 이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렸고 이는 미국에 전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밀러 대변인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긴장 완화를 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존 커비(사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이 공격에 대비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경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미국 정부가 이란과 소통하며 메시지를 주고받긴 했지만, 이란이 "공격 시기나 표적, 방식"에 대해 알린 적은 결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겨냥한 새로운 다자 제재와 관련해 다른 주요 7개국(G7) 회원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또 아직 이란혁명수비대(IRGC)를 테러단체로 지정하지 않은 G7 국가들이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무장 무인기(드론)를 대규모로 날리고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한 것은 지난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전례가 없는 일로, 이 공격에 동원된 무인기와 미사일은 모두 합해서 300개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일은 이스라엘 소행으로 이란이 지목한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 등 7명의 군인이 사망한 지 12일 만에 이뤄진 공격이었다.

이번 공격과 관련, 이란은 '작전 성공'을 주장했으나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발사한 각종 발사체의 99%를 요격했다며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헤일리, 보수 싱크탱크에 새 둥지

공화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맞서 마지막까지 대선 후보 경선에 남아 있었던 니키 헤일리(사진) 전 유엔대사가 보수 싱크탱크에 새 자리를 잡았다.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는 15일 성명을 통해 헤일리 전 대사의 합류 소식을 전하며 "니키는 외교 및 국내 정책에 있어 검증되고 능력있는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인 정치적 격동기에 그녀는 자유의 수호자이자 미국의 번영과 안보의 옹호자로 자리를 지켜왔다"며 "그녀가 허드슨 연구소에 합류하게 돼 영광"이라고 덧붙였다. 헤일리 전 대사는 별도 성명에서 "허드슨 연구소와 협력해 미국을 가장 위대한 국가로 만든 원칙을 수호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일리 전 대사는 향후 정치 행보를 숙고하는 동안 연구소에서 월터 스턴 석좌 자리를 맡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엔대사를 지낸 헤일리 전 대사는 이번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로서 저력을 과시했다.

다만 압도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벽을 넘지 못하고 '수퍼 화요일' 직후인 지난달 6일 대선 후보 경선 사퇴를 선언했다. 그녀는 사퇴 연설에서 "우리나라(미국)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에도 첨예하게 경쟁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우리 당 안팎에서 표를 얻을 수 있을지는 트럼프의 몫"이라고만 말했다.

허드슨 연구소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 댄 퀘일 전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일레인 차오 전 교통부 장관 등이 거쳐 갔다.

러 "현 중동 위기는 서방 탓…역내 모든 국가 자제해야"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 충돌로 고조된 중동 정세 불안에 대해 러시아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원에 실패한 서방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미하일 울랴노프 오스트리아 빈 주재 러시아 측 국제기구 상임대표는 15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서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는 극도로 위험한 사건들은 JCPOA 복원 협상을 가로막은 미국과 유럽3인방(영국·프랑스·독일)의 결정에 따른 결과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울랴노프 상임대표는 "이 상황을 피할 기회가 있었다"며 "서방은 현재 사건들이 발생할 길을 닦았다"고 비판했다.

2015년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프랑스·영국·러시아·중국)과 독일 등 6개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 동결 또는 축소를 대가로 미국, 유엔, EU 등이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핵 합의에 서명했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부활시켰다. 이에 이란 역시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제한하고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여왔다.

이란 반이스라엘 시위 [EPA 연합뉴스]

영국, 프랑스, 독일은 핵합의에 따라 지난해 9일 만료 예정이었던 대이란 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란이 JCPOA를 어긴 데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 복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보였고 서방과 이란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접촉하면서 상당히 진전을 이뤘다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는 바람에 협상이 중단됐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를 극도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가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더는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모든 불일치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만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인 러시아는 이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진 않았다.

러시아 외무부는 전날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위기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는 각국이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원론적 내용의 성명을 냈다.

세계은행 "가장 가난한 75개국과 선진국 소득격차 더 벌어져"

"한때 가난했던 한국·인도·중국 처럼 발전하도록 도와야"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75개 국가 중 절반 국가에서 선진국들과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세계은행(WB)이 분석했다.

세계은행이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에 75개 국제개발협회(IDA) 국가 중 절반에서 1인당 평균 소득이 증가한 속도가 선진국들보다 느렸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역사적인 역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세계은행은 평가했다.

IDA 국가는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IDA)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난한 75개 국가를 칭하는데 인류의 약 4분의 1인 19억명이 IDA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IDA 국가 3곳 중 1곳은 평균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직전보다 가난해졌다고 평가했다.

극빈율은 세계 나머지 국가들보다 8배 이상 높았고, IDA 국가 국민 4명 중 1명은 하루 2.15달러보다 적은 금액으로 생활하고 있다. 굶주림이나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세계 인구의 90%가 IDA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IDA 국가 절반이 채무 위기에 처했거나 그럴 위험이 크지만, 세계은행과 다른 다자 개발은행을 제외하면 이들 국가에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는다고 세계은행은 지적했다.

인더밋 길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세계가 IDA 국가들에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며 "IDA 국가의 안녕은 세계 번영의 장기 전망에 항상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세계 경제 강국 3곳인 중국, 인도, 한국 모두 한때 IDA 채무국이었다. 3국 모두 극빈율을 줄이고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번성했다"면서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면 오늘의 IDA 국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최신형 X-Ray 완비/교정 및 물리치료/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ra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드론·미사일 다 격추됐는데 외신은 "이란의 대성공" 왜

이란이 지난 13일 밤 300기가 넘는 자폭 드론과 탄도·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방공체계)과 미국·영국 공군에 의해 99% 요격됐다. 이번 공습을 두고 다수 서방 언론은 '이란의 군사적 손실이자,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평가하고 있지만, 이란이 얻은 것 또한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은 14일 이번 이란의 공격을 두고 '실패'라 평가절하하는 것은 큰 실수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충분한 사전경고 후 대규모 공격을 감행해 ▷이스라엘의 선방을 유도하고 거의 피해를 입히지 않아, 보복과 확전에 대한 책임을 피해갔고 ▷역내 동맹들에게 세력을 과시하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WP는 이날 이스라엘의 선방이 '이란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란은 수차례의 사전 경고로 이스라엘과 미국·영국 등 동맹이 자국의 공격을 막아낼 충분한 시간을 벌어줬고, 공격에 사용할 무기에 대한 정보도 사실상 노출해왔다고 전했다. FT는 "이날 발사된 이란 드론은 이스라엘 방공망이 쉽게 추적·제거가 가능한 느린 모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의 이란 전문가인 시마 샤인은 "이란의 공격은 이스라엘의 다층적인 방공망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도록 면밀히 설계됐다"며 "사상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까지 미리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스라엘 정부가 즉각 보복이 아닌, 신중한 대응을 고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1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고 있다.[신화=연합뉴스] 2 같은 날 테헤란 팔레스타인 광장에 모인 시위자들이 이란 국기와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고 있다. 3 이란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스라엘·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간 이란은 이스라엘과 대리 세력을 통해 상대방을 간접 타격하는 그림자 전쟁을 이어왔지만, 이번 공격으로 이란은 자국 주권을 침해하면 직접 보복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호세인 살라미 이란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은 이란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방정식이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도 약화시켰다고 이란 반관영 ISNA통신은 전했다. 매체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이란 정부를 거듭 설득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이번 작전은 이란의 억지력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자국민과 역내 동맹국을 향해 '강한 이란'의 이미지를 각인시킨 것도 큰 성과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이란이 엄청난 무력을 갖춘 나라임을 과시한 것이다. 이날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침략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다"고 발표했고, 수도 테헤란 시내에는 군중들이 쏟아져나와 국기를 흔들며 "이슬람 전사, 만세"를 외쳤다.

이스라엘 국방력의 허상도 일부 드러냈다고 FT는 전했다. 이날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이스라엘 방공망은 물론 미국·영국·프랑스·아랍국가 등이 총동원됐다. 매체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전쟁 이후 최근 몇달간 지속적으로 무시해온 파트너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안보 의존도가 선명하게 노출됐다"고 했다.

이란이 공격 시간을 밤으로 선택한 것 역시 '상징적 보복'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3일 밤 테헤란의 캄캄한 밤하늘을 가르며 드론과 미사일이 발사되자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다. 이어 이란의 무기들은 이라크·레바논의 밤하늘도 가로질렀고, 베이루트 등에선 시민들이 엄청난 발사체의 이동을 보며 박수를 쳤다.

WP는 "이번 공격이 최대한 장관으로 보이도록 연출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란틱카운슬의 홀리 다그레스 선임연구원은 "테헤란의 목표는 자신의 위력을 모두에게 과시하는 것"이라며 "이란이 전투기와 제공권 열세에도,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이번 공격은 대성공"이라고 전했다.

이란 국민 중 일부는 이번 공격으로 이미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 상황이 더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의 공격 다음날 테헤란을 포함한 여러 대도시의 주유소 앞에는 기름을 얻으려는 차량 대기 행렬이 1마일(1.6㎞)을 넘었다고 전했다. 일부 부모들은 혼란을 우려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수도 테헤란의 공항도 폐쇄됐다.

한편 이란은 이번 공격에 대해 "합법적 자위권 행사로, 역내와 국제 평화 그리고 안보에 대한 책임있는 방식을 보여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군사행동은 의제에 올라 있지 않다"면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추가 대응이 발생할 경우 '최소 10배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형수 기자

"암도 못막은 내 일, 러시아가 막았다"

암세포도 열정을 막진 못했다.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사진)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이야기다. 그는 유엔이 엄선한 대북 제재 전문가 7인 중 한 명으로 2014년부터 활약했다. 담관암 발병으로 2019년부터는 상임으로는 활동하지 못했으나 비상임으로 활동과 연구는 계속해왔다. 그는 북한이 미국 및 한국, 유엔의 제재망을 교묘히 뚫는 현장을 포착하고 예측하는데 에너지를 쏟았다.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활동에 그가 큰 애정을 갖는 까닭이다. 그 패널은 그러나 이달 중단된다. 러시아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지난달 전문가 패널의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안보리는 매년 이 패널의 활동을 투표를 통해 연장해왔는데, 올해 연장안 투표에서 러시아가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했다. 알브란트 박사는 14일 중앙일보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러시아로 인한 패널 강제

대북제재 전문 패널 10년 알브란트

유엔이 엄선한 전문가 7인 중 한명

러시아, 대북제재 패널 거부권 행사

종료는 북한의 도발과 자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위한 전략적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라며 "국제사회가 어떻게든 (패널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강제 종료의 의미는.

"북한은 그간 대북 제재망에 교묘한 구멍을 뚫으며 사이버 테러 등을 통해 각종 도발을 위한 자금을 충당해왔다. 패널은 유엔을 대표해 북한이 선박 세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재망을 피하는 행위를 적발했다. 러시아는 북한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닦아준 것과 다름없다. 지금은 세계가 북한에 집

중할 수 없는 시기이고, 따라서 북한은 쾌재를 부를 것이다. 북한은 지난 몇 년 간 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방법을 개발해왔다. 시간이 많지 않다."

-패널을 대체 또는 부활시킬 방법은.

"지금이 중요한 분기점이다. 러시아 같은 일부 국가의 정치적 책략에 넘어가면 안 된다. 부활이 어렵다면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 유엔의 프레임 밖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 등이다. 하지만 유엔 밖의 조직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알브란트 박사는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유엔에서 대북 전문가로 20년 이상 일했다. 유엔 공식 언어인 프랑스어에도 능통하고, 중국어도 구사한다. 그는 패널로 임명된 후 북한 측과도 접촉하려 노력했으나 허사였다고 털어놨다.

-힘든 순간도 많았을 텐데.

"유엔 소속 대북 제재 전문가로 활동한다는 것은 때로 자국의 입장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는 뜻도 된다. 한때 북한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벨기에에 대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던 적이 있는데, 이때 우리 패널의 입장은 (내 나라인) 미국과는 좀 달랐다. 그럼에도 우린 밀어붙였고 우리 판단이 맞았다."

-내년부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 정부에 조언한다면.

"내년부터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더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됐다.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는 필수고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야 한다."

-암 투병 중인데.

"(암) 선고를 받은 게 3년 전이다. 희귀암 말기이지만 잘 버티고 있다. 대북 제재 패널 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다. 암 투병 중이라고 해도 출장도 잘 다닌다. 대북 제재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

전수진 기자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AWARDED

LENNOX Carrier TRANE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마약 벨트검사 퇴직 후 '학생에 대마판매' 변호

'수사 베테랑' 벨트 검사 전수조사

289명 중 89명 퇴직, 78명이 변호사 대다수 '검찰 때 전문가' 홍보 나서

그는 최근까지 '검찰의 마약통'으로 이름난 검사였다. 크고 작은 마약 사건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성과로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고, 검사 임관 9년 만에 검찰을 대표하는 마약 수사 전문가에게 주는 '블루벨트'(2급 공인전문검사)를 땄다. 마약 분야 블루벨트 검사는 2013년 공인전문검사 제도 시행 이래 12명뿐이었다. 그는 17년 차이던 2022년 퇴직해 마약 전문 변호사가 됐다. 마약사범 잡던 검사가 마약범의 가장 든든한 방패로 변신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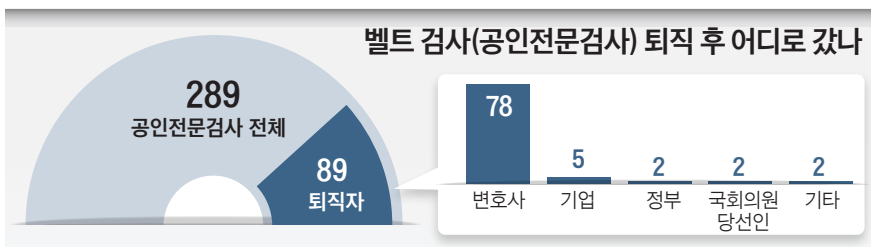
성범죄 분야 블루벨트를 딴 13년 차 검사 출신 역시 퇴직 후 경로는 비슷했다. 그는 2019년부터 '성범죄 특화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2022년 말 12세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성범죄 피의자를 변호했다. 이 피의자는 지난해 1심과 올해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일보가 이들 마약통 및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포함해 '벨트 검사' 289명(블랙 8명, 블루 281명)의 명단을 입수해 전수조사한 결과, 89명이 퇴직해 78명이 현직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벨트 검사 출신 변호사 대부분은 벨트 취득 사실을 활용해 '전문 변호사'로 홍보하고 있다. 각 로펌 역시 "블루벨트 출신 검사 영입" 등의 문구를 마케팅에 활용한다. 실제 위 사례에 나온 마약통 변호사는 현재 경기도 용인시 일대의 16~17세 미성년자들에게 대마를 판매한 일당의 총책을 변호하고 있다. 이들 일당은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의 액상대마 흡연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내자는 계획도 세웠다. 1심 재판부는 마약통 변호사가 변론한 총책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른 변호사는 퇴직 이후 변호사 사무실을 연 뒤 '검찰 내 최고 성범죄 전문가 출신'이라는 점을 홍보에 활용했다. 검사 시절 성범죄 사건 수사·공판 매뉴얼을 제작·개정하는 데 참여했던 그는 이제는 월별로 기소유예·혐의없음·무죄 종결 사례를 공개하는 등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실적을 홍보하고 있다.

수사 전문성을 쌓은 검사가 퇴직해 변호사가 된 뒤 범죄 피의자를 변호하는 건 당연히 합법적인 일이다. 전문성을 사건 수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역시 시장 논리의 결과이기도 하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중앙일보 취재에 "벨트를 취득하는 것은 검사 입장에서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이고, 그만큼 사건을 보는 눈이 밝고 경륜이 있다는 뜻"이라며 "(퇴직 후) 가해자 측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한다면 이를 이끄는 것도 변호사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벨트 검사 출신 변호사 주요 수임 사례

전문 분야	사건 개요	선고 결과 1심	선고 결과 2심
A변호사 마약	미성년자에게 액상대마 권유·판매. 이후 흡연 장면 몰래 촬영해 협박·갈취(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징역 10년	진행 중
B변호사 성폭력	12세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착취물 제작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C변호사 관세	중국서 금괴 159㎏(72억원 상당) 밀수 및 방조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 등)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진행 중 ※C변호사는 1심만 참여

하지만 다단계 수사 분야 1급 블랙벨트를 땄던 이종근 변호사가 퇴임 후 고액 수임료를 받고 다단계 피의자를 전문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 세금으로 양성한 벨트 검사가 새로운 전관 양성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검찰 내에서도 "벨트 제도가 전관예우 금지 제도를 비켜가는 일종의 틈새 구멍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적 관심이 쏠리거나 혐의가 중대한 범죄일수록 벨트 검사 출신 변호사를 찾는 경향은 두드러졌다. 마약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변호인단에 마약 분야 블루벨트를 보유했던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의 이름이 올라 있어 논란을 일으킨 것도 단적인 사례다. 이른바 거물 피의자일수록 벨트 검사를 찾는 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검찰 네트워크를 겸비한 셈이라 의뢰인이 찾지 않을 이유가 없다"(수도권 부장검사)는 경쟁력 때문이다. 반면에 검찰 입장에선 벨트 검사 출신 때문에 수사와 재판의 난이도, 즉 비용이 커진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주로 수사 단계까지 선임되는 점을 고려하면 알려지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벨트 검사 출신은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홍보하고, 그 결과 자신이 검사 시절 수사한 사건과 유사한 구조에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검사 시절 여러 건의 대형 금괴 밀수 사건을 수사·기소한 공적으로 블루벨트를 딴 뒤 퇴직해 중국 국적의 금괴 밀수범을 변호한 사례도 있었다.

관세 분야 블루벨트 변호사가 맡은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총 159㎏(약 72억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밀수입 방조 행위는 국가의 관세 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임을 감안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벨트 검사 출신의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검사 시절 공직에서 쌓은 수사 전문성을 범죄자 변호에 사용하는 만큼 스스로 사건을 가려서 수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피해자들 돈으로 수임료를 받거나 피의자 죄질이 흉악한 경우라면 더욱 윤리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우·김정민·양수민 기자

따개비 떼다가…화물선에 숨긴 '코카인 94만명분' 찾았다

멕시코 출발, 울산 온산항 정박 배 따개비 제거하던 잠수부가 발견

멕시코에서 입항한 화물선에 9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코카인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재만)는 관세청과 공조를 통해 지난 5일 울산 온산항에 정박 중인 멕시코발 2만5000t급 화물선에서 코카인 28.43㎏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약 9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 약 142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미국 마약단속국(DEA)와 공조해 코카인 밀수 경로를 수사 중이다.

지난 6일 울산 온산항에 입항한 멕시코발 화물선에서 발견된 마약. 1㎏씩 블록 형태로 소분돼 있다. 작은 사진은 잠수부가 코카인이 든 가방을 발견해 인양하고 있는 모습. [사진 대구지검]

검찰에 따르면 코카인이 발견된 곳은 배의 균형을 잡거나 냉각수로 사용하기 위해 해수가 유입되는 통로인 씨체스트(sea chest)였다. 씨체스트는 평소 바닷물에 잠겨 있는 부분이다. 지난 6일 잠수부가 씨체스트에 붙은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수상한 가방을 발견해 신고했다.

코카인은 1㎏씩 28개 블록 형태로 포장해 검은색 가방 안에 들어 있었다. 이 중 2개 블록 안에서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장치도 발견됐다.

대구본부세관은 신고된 가방을 열어 간이 시약 검사를 통해 코카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대구지검은 마약과 선원들의 휴대전화를 긴급압수하고 선체를 수색했다. 이와 함께 신고자와 6개 국적의 선장·선원 19명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투입했는지 감정을 의뢰하고 화물선 입출항 경로 등을 분석하고 있다.

마약이 발견된 화물선은 아연·납 광석을 운반하는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으로 지난달 4일 멕시코 만사니요항을 출발한 후 같은 달 16~19일 캐나다 벤쿠버항을 경유해 지난 5일 울산 온산항에 도착했다. 이후 일본을 거쳐 뉴질랜드에 입항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이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이 마약 밀반입에 관여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코카인이 지난해 밀수출을 위해 화물선의 씨체스트에 숨겼으나 계획대로 회수되지 못한 채 방치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선사 측에서 지난해 6월 3일 마지막으로 씨체스트 청소작업을 진행했고, 압수 당시 최대 배터리 수명이 1년인 GPS 장치의 배터리가 모두 방전돼 작동하지 않는 않은 점, 코카인 가방 표면에 번식하고 있던 따개비 형상 등을 고려할 때 1년 정도 방치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코카인 밀수 사건은 한국을 경유한 후 다른 국가로 출항하려는 선박이나 다른 국가에서 짐을 내리지 못한 화물에서 적발됐다.

지난 1월 브라질에서 출발해 싱가포르·홍콩을 거쳐 부산항으로 입항한 선박에서 100㎏이 발견된 사건, 2021년 9월 페루에서 출발해 에콰도르·과테말라·멕시코·일본을 거쳐 부산항에 들어온 선박에서 400㎏을 적발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마약류 밀수범죄에 대응하고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정석 기자

여당, 급할 때마다 외부수혈 의존…"당내 청년부터 키워야"

국민의힘 '총선 참패' 왜
수직적 문화, 내부인재 활용 적어
보좌진 출신 당선인 여 2명·야 18명

"보좌진은 국회의원으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말은 더불어민주당에선 맞지만 국민의힘에선 틀린 말이다.

중앙일보가 15일 22대 총선 당선인 경력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초·재선 중엔 최소 18명이 국회 보좌진 출신인 반면, 국민의힘에선 2명 정도에 불과하다. 민주당 소속 재선 9명(강득구·김영배·김원이·박상혁·박수현·신영대·이해식·장철민·허영)과 초선 9명(김성회·김영환·김우영·문대림·박민규·안태준·이기헌·이연희·채현일)이 과거 의원실 비서관·보좌관 등으로 활동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선 정희용·초선 강명구 당선인이 같은 케이스다.

전직 민주당 의원은 "김경수 전 의원, 유시민 작가 같은 유명 정치인도 보좌관 생활로 정치 근육을 키웠다. 상대적으로 의원과 보좌진이 '동지적 관계'를 맺는 전통이 깊다"고 말했다.

여권에도 과거엔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 여럿 있었다. 이정현(3선), 김선동·정양석(이상 재선) 전 의원 등이 그런 사례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불출마했고 이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험지에서 낙선했다. 4선 권성동 의원은 지난달 19일 페이스북에 "(비례 공천 명단을) 당 사무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좌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순번) 배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보면 답이 나온다"고 썼다. 익명을 원한 TK지역 보좌관은 "의원과 보좌진을 주종 관계로 인식하다보니, 사람이 필요하면 외부에서 급조하는 게 이 당의 공식"이라고 토로했다.

2020년 4월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개표상황실을 떠나고 있다. 오른쪽은 11일 사퇴 기자회견을 한 후 당사를 나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김성룡 기자, [연합뉴스]

급할 때면 간판부터 밖에서 찾는 일이 반복되며 여권의 인물난은 심화됐다. 황교안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모두 정치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총선 지휘봉을 잡았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비대위 설치→간판 영입'이 반복된다는 건 체질이 약해졌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새 얼굴마저 중도층 지지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한동훈 전 위원장도 권력에 할 말을 못 했다. 중도적 스탠스의 인물이 하나도 보이질 않으니 수도권에서 이길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이 찬반으로 크게 갈린 이후 '정통 보수'와 '중도 보수'가 사사건건 반목해 온 것도 인재가 자라기 어려운 토양으로 작용했다. 당내에선 "보수 정체성 위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허용되던 전통이 탄핵 이후 단절됐다"는 말도 나온다. 엄기홍 경북대 교수는 "현재 국민의힘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가 결여된 정당"이라고 했다. 한 수도권 당선인은 "이준석을 두고 '싸가지 없다'고 하는 분위기에선 쇄신은 먼 얘기"라고 말했다.

심새롬·김효성 기자

험지서 이긴 김재섭 "기쁨은 하루뿐, 함께 고생한 청년들 낙선 뼈아파"

〈서울 도봉갑〉

한강벨트를 벗어난 서울 강북 지역의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당선인은 김재섭(37·서울 도봉갑·사진)이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당선인은 "영입 인재에 목을 매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청년에게 책임 있는 자리를 맡기고 정당한 보상을 하면서 정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그는 청년정당을 준비하다 미래통합당에 합류해 도봉갑에 공천받았지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졌다. 당협위원장을 맡아 4년간 뛴 끝에 4·10 총선에선 안귀령 민주당 후보를 1.2%포인트 차로 꺾었다. 김 당선인은 "기쁨은 하루 밖에 안 갔다. 함께 고생했던 청년 후보가 경선 혹은 본선에서 대거 낙마한 것이 뼈아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청년 정치인이 이번 총선에서 대거 낙선했다.

"영남과 서울 강남 3구 외 국민의힘 신인이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는 사실상 없다. 인재 영입도 어렵지만, 영입한 인재가 당선될 만한 지역 자체가 제한돼 있다보니 인재영입→험지 낙선→정치 포기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반면 민주당은 장경태·전용기 의원 등 청년 몫으로 원내 진입한 의원이 안정적 지역에 공천을 받아 재선 고지를 밟았다."

-국민의힘이 '수포당'(수도권 포기당)으로 전락했다.

"불과 2년 전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그때는 영남 정당이 아니었다. 잘했던 걸 복기하면 된다. 대통령실과 국민 생각의 괴리를 당이 바로잡고, 민주당이 지켜내지 못했던 정의와 공정을 관철하려고 했던 때로 돌아가면 될 것 같다."

-정치 신인은 생계도 고민이지 않나.

"4년 전에 첫 출마 땐 미혼이었고, 직업이 없어도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나'라는 생각으로 도전했다. 하지만 이제 결혼도 했고, 곧 아내가 출산도 앞두고 있다. 다행히 글을 쓰거나 방송 출연 등 4년 동안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정규직 직장인이 원외 당협위원장을 하는 건 너무 어렵다. '부자만 정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의 '열정 페이' 문화를 지양하고 책임 있는 자리를 맡기고 정당한 보상을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의정 활동을 하고 싶나.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는, 말 그대로 정치를 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 지금은 여당과 야당이 대화가 안 되고, 제도와 제도가 부딪히고 있다. 민주당은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실은 거부권으로 맞서면서 정치의 공간이 사라졌다. 또 여야의 젊은 의원들과 '위성 정당 방지법'과 같은 법안을 논의하고 싶다."

이창훈 기자

칼 빼든 이재명 "검찰, 이화영 회유 위해 술파티…국기문란"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총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건달에 빗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사실상 진술 조작을 강요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한 말이다. 이날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을 고리로 전방위 대여 압박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김성룡 기자

이 대표는 "구속 수감자들이 한 방에 모여 술파티, 연어파티를 하고 작전회의를 하는 게 가능하냐.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 검찰이 사실상 승인한 것"이라며 "중범죄이자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측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2019년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던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는 "검찰이 회유하면서 (구속된) 김성태 전 회장 등과 검사실 앞 창고에서 소주를 마시는 걸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증언 자체가 허위라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다양한 객관적 물증과 수많은 증인의 증언에도 증거가 조작됐다는 상식 밖의 허위 변명으로 일관하던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거둔 직후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이 증인을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닮았다고 말했다. 이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으나 검찰은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를 거쳐 "위증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고, 민주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정 갈등과 관련해선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민생 살리기에 정치가 제 역할을 하라는 것이 총선 민의"라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 역시 오로지 민생에만 국정 동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4월 10일 이전의 국정과 그 이후의 국정은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재·전민구·정용환·윤지원 기자

세월호 10년 … 치유하고 나누며, 다시 살아갑니다

2014년 4월 16일로부터 3654일, 만 10년이 흘렀다. 기억 속 세월호는 여전히 위태로운 모습 그대로다. 국민 생명이 최우선인 안전한 나라는 아직 요원하다는 뜻이다. 그래도 남겨진 이들은 슬픔의 심연에만 갇혀 있지 않았다. 304명을 가슴에 묻고 새긴 채 안간힘을 다해 살아냈다. 마음 치유사로 다시 선 생존 학생, 기간제 교사 딸의 차별 철폐를 끌어낸 아버지, 다른 재난 현장을 찾아 봉사하는 어머니들, 선장의 사죄를 끌어낸 목사. 이들에게 지난 10년의 시간을 물었다. 이보람·손성배 기자

유가영씨가 장애인 아트 미술 작품을 보고 있다. 손성배 기자

트라우마 안고 살아난 우리 동일본지진 생존자 보듬어

'운디드힐러' 만든 생존자 유가영씨

'운디드 힐러(상처 입은 치유자)'. 유가영(27)씨가 그날 세월호에서 함께 구조된 친구 3명과 2018년 결성한 단체다. 지난 9일 안산 단원고 앞에서 만난 그는 "트라우마를 안고 생존한 우리가 다른 재난의 생존자를 치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시 서는 게 쉽지 않았다. 단원고 2학년 2반이었던 그는 기울어진 선실에서 친구가 내민 손을 잡고 겨우 빠져나왔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에 시달렸고, 정신병원에도 입원했다. "요즘도 찾아드는 악몽이 저를 그날의 바다로 데려갑니다. 나만 살아남아 괴로워하는 꿈, 주위 사람들이 떠나가는 꿈."

그 바다에 머무는 대신 나아가는 길을 택했다. '운디드힐러'로서 트라우마 아동·청소년을 돕는다. NGO 활동가 교육을 받고 지난달엔 동일본 대지진 생존자도 만났다. 에세이 『바람이 되어 살아낼게』를 펴낸 그는 "제 인생을 기록하며 10년, 그 다음 10년도 기어이 살아내겠다"고 말했다.

순직한 딸의 사진을 품에 안고 있는 김성욱씨. 손성배 기자

학생들 구하려다가 떠난 딸 기간제 순직 인정돼 위안

'교사차별 철폐' 외친 김성욱씨

세월호 희생자 중 단원고 교사는 11명이다.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당시 26세)씨는 참사 이후 3년 넘게 '기간제 교사'란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참사 당시 탈출이 쉬운 5층에 있었지만, 학생들을 구하러 4층에 내려갔다. 아버지 김성욱(64)씨는 순직 인정과 기간제 교사 차별 철폐를 촉구하며 3년간 전국을 돌았다.

지난 11일 만난 김씨는 안산 4·16 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의 딸 책상 앞에서 참사 전날을 회상했다. "딸은 학생과 처음 떠나는 수학여행에 들떴고 바빴습니다." 참사 이틀 뒤 새벽 딸은 구명조끼도 없이 떠날 때 모습 그대로 떠올랐다. 김씨는 회사 생활을 접고 낙향한 뒤 딸의 신원에 매달렸다. 딸은 2018년 1월 또 다른 기간제 교사 이지혜씨와 함께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에 안장됐다.

김씨는 "남들은 잊으라지만 땅에 들어가야 없어질 아픔"이라며 "딸을 대신해 기간제 차별을 없앴다는 의미를 남겨 위안으로 삼는다"고 말했다.

경로당에 양파 나눔 봉사를 간 박정화(왼쪽)씨. [사진 박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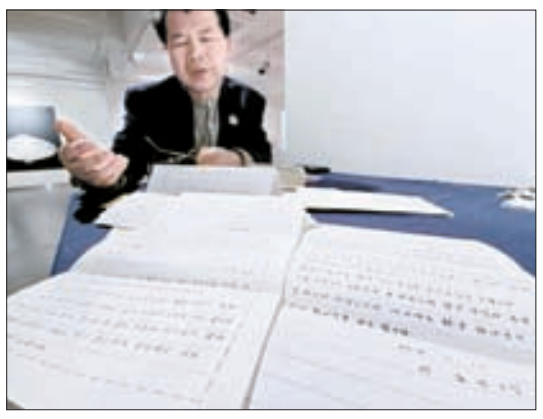
연탄 나르고 김장 2000포기 위로받은 순간을 나눈 것뿐

'세월호 유족 봉사단' 만든 박정화씨

그날 딸인 단원고 2학년 9반 조은정 양을 떠나보낸 박정화(56)씨는 그해 겨울 달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연탄 배달과 2000포기 김장 나눔 봉사를 시작했다. 지난 12일 4·16 꿈숲학교에서 만난 박씨는 "참사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작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참사 전까지 박씨는 버섯요리 식당을 하던 평범한 엄마였다. '나 홀로' 봉사에 나선 지 4년쯤 지나, 단원고 학부모 20여명과 4·16가족나눔봉사단을 꾸리고 단장을 맡았다. "진도체육관, 팽목항, 안산분향소까지, 4년 넘게 같이 마음 아파하고 보듬어준 분들한테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기로 한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 건 단원들이 버텨내는 원동력이다. 그래도 아이들이 희생되는 사건·사고는 여전히 마주하기 힘들다. 최근 재난안전전문가 중급 과정을 수료한 박씨는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헌권씨가 이준석 선장의 편지를 보이고 있다. 손성배 기자

이준석 선장·선원들에 편지 그들의 참회로 유족 위로

'속죄' 이끌어낸 목사 장헌권씨

장헌권(67) 광주 서정교회 담임목사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재판을 모두 방청했다. 지난 13일 광주 금남로 시민분향소에서 만난 그는 "처음 재판 보러 간 날(2014년 6월 10일) 절규하는 유족을 보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책임자의 참회 촉구에 나선 건 그해 10월 교도소의 선원 15명에게 "그날 일을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편지를 쓰면서다.

2018년엔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이준석 선장(79)과도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 선장의 속죄 편지에 "범죄자의 참회를 끌어내서 뭐하냐"고 불만을 제기하는 유족도 있었다. 장 목사는 그래도 그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난달 면회 때 이 선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유족에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왜 승객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먼저 나왔는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장 목사는 "세월호 참사는 유족들이 끝났다고 해야만 끝나는 슬픈 역사"라고 말했다.

'만취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방송인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독자 약 6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유튜브를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형기는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쯤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을 쳐 사망하게 했다.

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넘는 0.26%였으며, 야간이고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다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숨진 여성을 사고 현장에서 약 12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한 조형기는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약 7시간 뒤, 경찰에 체포된 조형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형을 선고했고, 조형기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형기의 그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더 높였다.

배우 한지일이 지난해 SNS에 공개한 조형기의 근황. [한지일 SNS]

당초 국선 변호사를 고용한 조형기는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조형기 측은 "시신 유기안 했다. 음주하고 차로 친 건 알겠는데 시신 유기는 내가 하지 않았다. 제3자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 조형기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형기는 당초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복역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앞서 온라인 백과사전 나무위키 등에는 조형기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복역 2년 만인 1993년 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석방됐다고 기재돼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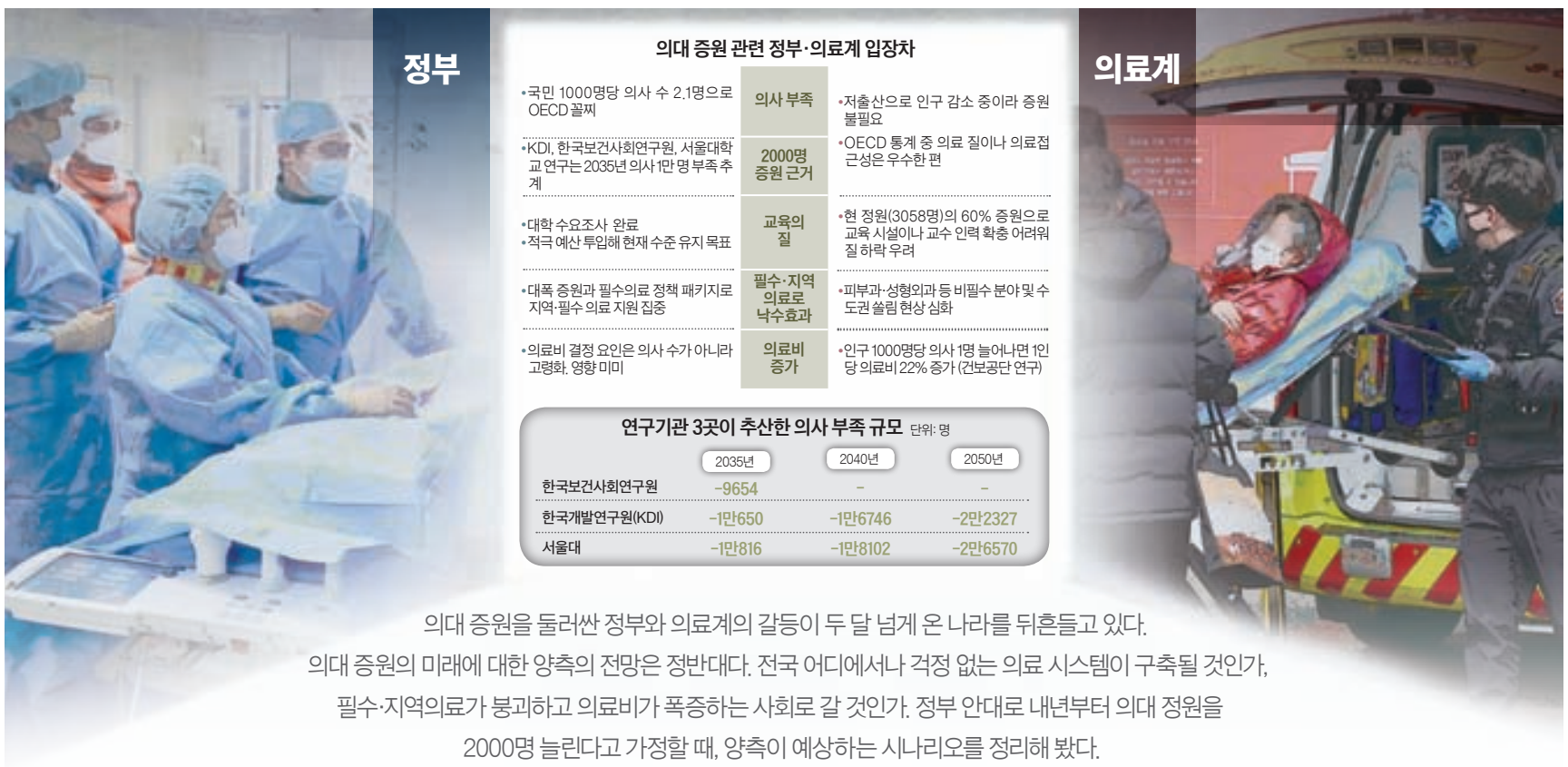
김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1993년 3월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졌다"며 "하지만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거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형기는 2017년 방송된 MBN '황금알'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국내 방송가에서 퇴출됐다. 정시내 기자

"누구나 사는 곳에서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

의대 2000명 증원되면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

"의료의 질 떨어지고 의료비 부담은 더 늘어"



의대 증원 관련 정부·의료계 입장차

•국민 1000명당 의사 수 2.1명으로 OECD 꼴찌	의사 부족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 중이라 증원 불필요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는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 추계	2000명 증원 근거	•OECD 통계 중 의료 질이나 의료접근성은 우수한 편
•대학 수요조사 완료 •적극 예산 투입해 현재 수준 유지 목표	교육의 질	•현 정원(3058명)의 60% 증원으로 교육 시설이나 교수 인력 확충 어려워 질 하락 우려
•대폭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지역·필수 의료 지원 집중	필수·지역 의료로 낙수효과	•피부과·성형외과 등 비필수 분야 및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
•의료비 결정 요인은 의사 수가 아니라 고령화, 영향 미미	의료비 증가	•인구 1000명당 의사 1명 늘어나면 1인당 의료비 22% 증가 (건보공단 연구)

연구기관 3곳이 추산한 의사 부족 규모 단위: 명

	2035년	2040년	205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654	-	-
한국개발연구원(KDI)	-1만650	-1만6746	-2만2327
서울대	-1만816	-1만8102	-2만6570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두 달 넘게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의대 증원의 미래에 대한 양측의 전망은 정반대다. 전국 어디에서나 걱정 없는 의료 시스템이 구축될 것인가, 필수·지역의료가 붕괴하고 의료비가 폭증하는 사회로 갈 것인가. 정부 안대로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가정할 때, 양측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정리해 봤다.

#. 서해 최북단 섬인 인천 옹진군 백령도. 2035년 이곳 주민들은 "원할 때마다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인천시의료원 소속 백령병원에 7개 과목 전문의가 모두 채용되면서다. 10년 전인 2025년만 해도 백령병원 전문의는 3명에 불과했다.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려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했다. 출산이 임박해 '소방헬기'를 타고 도시로 가는 임신부도 있었다.

의대를 2000명 증원해 의사 숫자가 늘고 필수·지역의료 대책이 뒷받침된다면, 정부는 이런 미래가 가능하다고 본다. 보건복지부는 "2035년엔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최근 복지부가 배포한 홍보 포스터는 임신부를 진료하기 위해 배를 타고 섬마을 왕진을 도는 젊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모습을 담기도 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의 미래의 모습은 이렇다. 우선 늘어난 의사는 지역의료에 다수 종사한다. 2025년 늘어나는 정원 2000명 가운데 82%인 1639명이 비수도권에 배정됐다. 향후 5년 동안 8000명이 넘는 지역 의대 졸업자 중 상당수가 졸업 후에도 지역에 남는다.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40%에서 60% 이상으로 올리고, 지역 필수의료기관에 장기 근속하는 의사를 길러내는 '계약형 필수의사제'가 도입되면서, 지역의료 종사자가 늘어나리라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지역 국립대병원은 서울 '빅5' 병원에 준하는 대형 병원으로 성장한다.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는 1000명 더 늘어나고, 권역별로 최대 500억원이 지원된다. 지역 국립대병원이 성장함에 따라 암수술을 하기 위해 지방에서 멀리 수도권까지 상경치료를 받으러 올 필요가 없어진다. 의료전달체계도 병원 규모별로 역할이 확실히 구분된다.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진료에 주력한다.

필수의료 유입도 늘어난다. 필수의료에는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자리를 잡아 의료진의 형사소송 부담을 던다. 필수의료를 기피했던 주요 원인인 낮은 보상과 법적 책임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필수의료 지원자도 자연스레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수련병원의 개념도 확 바뀐다. 현재 수도권 대형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전공의들이 권역별로 다양한 병원에서 수련을 받도록 환경이 바뀐다. 대형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중증환자 진료에 전념한다.

채혜선 기자

정부가 예상하는 2035년
백령도 등 섬에도 전문의 모두 배치
지역 국립대병원은 '빅5' 처럼 성장

#. 2035년 한 지방 소도시에 사는 70대 A씨는 몇 해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다 살아났다. 재발 위험이 있다지만,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에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한 명뿐이다. 의대 증원을 해서 의사가 많아졌다는데, 그 많은 의사는 다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A씨의 아들은 "건강보험료가 과거보다 크게 올랐다"고 푸념한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이 2000명으로 확대되면 한국 의료의 미래가 암담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의 필수·지역의료 공백은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의료비 증가와 의료 영리화로 이어질 것이라 걱정한다.

의료계가 보는 암울한 미래는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 우선 가장 빨리 닥칠 문제는 의대생 집단 유급 및 전공의 공백 장기화다. 상당수 전공의가 전문의 길을 포기하고 일반의로 개원가에 취직하거나 군 복무를 택한다. "앞으로 4~5년간 전문의 수급은 망했다"(김대중 대학내과학회 수련이사)는 것이 현재의 전망이다.

의학 교육의 질 저하도 문제가 된다. 2000명 증원은 현 정원(3058명)의 60%를 한 번에 늘리는 작업이다. 해부학 실습처럼 소수로 이뤄져야 하는 수업은 "지금도 카데바(실습에 사용되는 시신) 확보에 난항을 겪어 구색 맞추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의대생협회)는데, 더 악화할 것이라고 의료계는 우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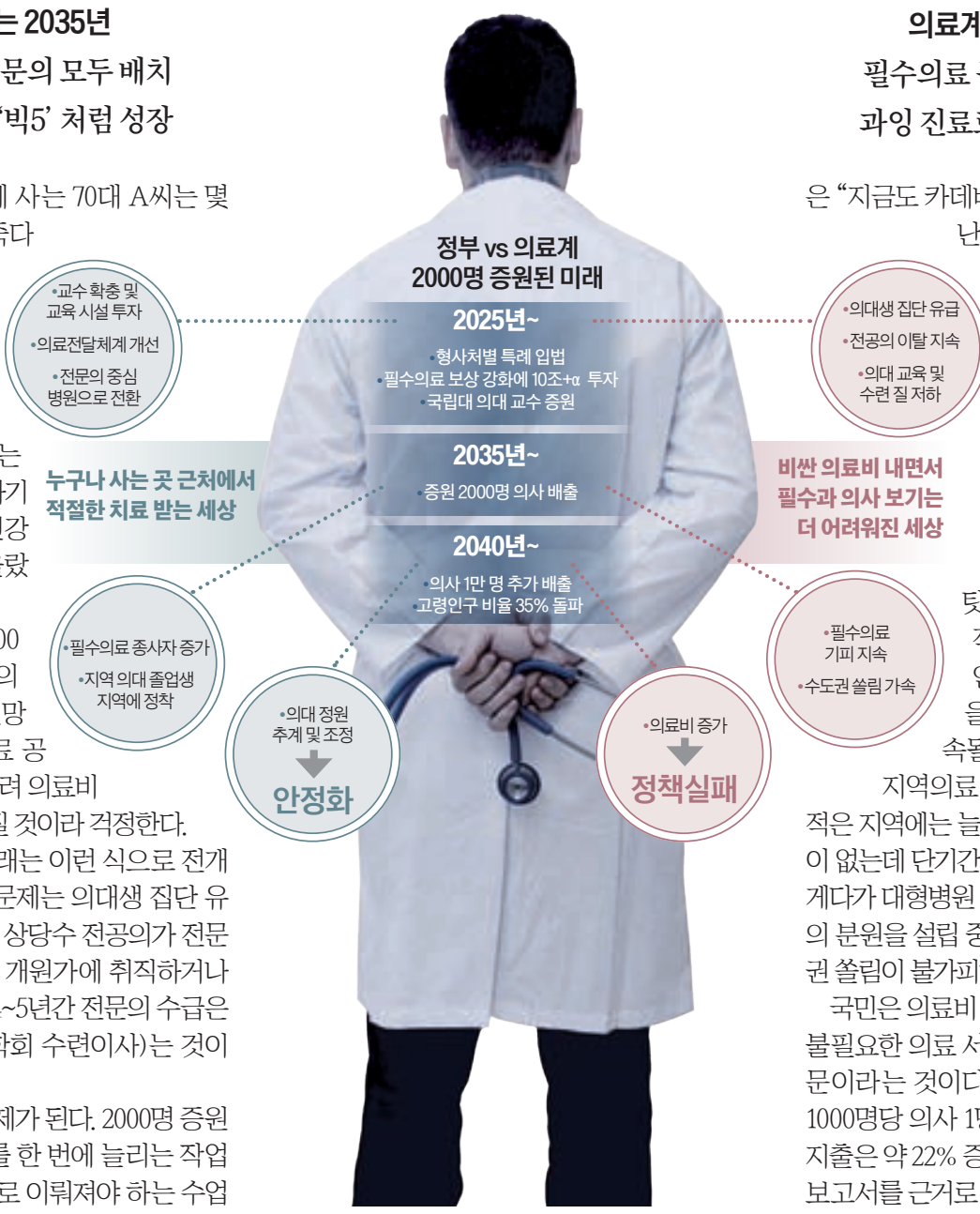
의대 증원으로 향후 추가로 배출된 의사들은 필수의료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필수과 진료에 대해 수가 가산율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했지만, 애초에 워낙 저수가로 책정된 탓이다. 진료·수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근본 구조가 그대로인 한, 비급여 진료로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비필수과로의 쏠림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역의료도 암울하긴 마찬가지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늘어난 의사를 수용할 만큼 큰 병원이 없는데 단기간에 확충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대형병원 9곳이 수도권에 총 6600병상 규모의 분원을 설립 중이라 추가 배출된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이 불가피하다.

국민은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 의사 수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까지 과잉 공급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인구 1000명당 의사 1명이 늘어나면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약 22% 증가한다"는 2007년 건보공단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든다.

남수현 기자

의료계가 예상하는 2035년
필수의료 공백 커지며 전문의 줄어
과잉 진료로 환자 부담 크게 늘어나



우리말 바루기

‘원활’, ‘원할’

많이 쓰면서도 헷갈리는 단어가 ‘원활/원할’이다. “‘원활/원할’한 공급을 위해 사전 예약 서비스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등처럼 심심치 않게 나오는 낱말이지만 어느 것으로 적어야 하는지 아리송하다.

바른 표현은 ‘원활’이다. ‘원활(圓滑)’은 거침이 없이 잘되어 나감을 뜻하는 한자어다. ‘둥글 원(圓)’ 자와 ‘미끄러울 활(滑)’ 자로 이루어져 있다. ‘활(滑)’은 거침없이 매끄럽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윤활유(潤滑油)’의 ‘활’ 자를 생각하면 ‘원활’도 바르게 적는 데 도움이 된다. ‘원할’은 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은 낱말, 즉 존재하지 않는 단어다.

‘원활’은 모난 데가 없고 원만한 것을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인간 상호 관계의 원활은 상대와의 충돌이 없음을 의미한다”처럼 사용된다.

‘활’을 써야 할지, ‘할’을 써야 할지 망설여지는 단어로는 ‘역활’과 ‘역할’도 있다. 이때는 ‘역할’이 바른 말이다. ‘역할(役割)’은 ‘부릴 역(役)’ 자와 ‘나눌 할(割)’ 자가 만나 이루어진 단어다. ‘역활’은 없는 낱말이다. ‘원활’과 같은 모양의 ‘역활’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활인’‘할인’ 역시 헷갈리는 단어 가운데 하나다. ‘나눌 할(割)’ 자와 ‘끌 인(引)’ 자를 쓴 ‘할인’이 바른 말이다.

중앙칼럼

‘99센트 온리 스토어’ 재기할까

이은영
LA중앙일보
경제부 부장

최근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99센트 온리 스토어’ 폐점이다. 업체 측은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텍사스 주 등에 있는 371개 매장을 모두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남가주에는 143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폐점 발표 후 첫 주말인 지난 7일 99센트 스토어 주차장은 차와 사람으로 넘쳤다. 폐업을 앞두고 모든 매장 물건을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 이벤트를 시작해서다. 가주 주민들에게 파란색과 핑크 로고의 ‘99센트 온리 스토어’는 이민자의 도시인 LA의 아이콘이다. 여러 세대에 걸쳐 푸드스탬프 등 정부보조금을 받는 저소득층부터 이민자, 노동자 계층까지 일반 상점과 고급 백화점을 이용하기 힘든 주민들이 모두 1달러 미만에 생필품을 해결했다. 재고품, 폐업 세일 제품, 백화점 반품, 과잉생산 재고, 파산기업 제품으로 시작된 달러 제품은 생필품으로 손색이 없었다. 최근에는 생필품 브랜드와 식품까지 다양해지면서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99센트 온리 스토어’는 1982년 웨스트체스터에서 데이비드 골드가 설립했다. LA 그랜드 센트럴 마켓에서 와인 상점을 운영하던 골드는 라데라 하이츠에 첫 99센트 온리 스토어를 열었다. 이 회사는 1996년 상장 당시 1억2500만 달러의 투자금이 몰렸다.

그의 경영 철학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런 방침이 고객들의 쇼핑 경험으로 전달되면서 99센트 온리 스토어는 달러트리, 달러제너럴, 월마트 같은 경쟁사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형성했고 그들은 수십년간 매장을 지켰다.

경기 침체나 불황이 지속하면 달러 스토어들은 호황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 둔화 속 달러스토어 고객들의 소비패턴은 이를 따르지 않는다.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이후 경기둔화가 이어지면서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지갑을 닫아서다. 달러 스토어들은 수익 전망치를 낮췄다.

이는 경기 둔화에 따른 경제적 고통이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2년 동안 식품 인플레이션은 20%가 넘었다. 특히 저소득층의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 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달러 스토어를 이용하던 고객들은 이제 푸드뱅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99센트 스토어 폐업은 지난 3월 달러트리가 예상치를 밑도는 분기 실적 발표 후 매장의 대거 폐쇄를 발표했을 때보다 충격 여파가 더 크다. 고객의 신뢰와 충성도에도 수입억 달러 규모의 40년 된 회사는 버티지 못했다. 팬데믹 이후 클릭 한 번으로 최저가 상품이 1~2일 사이 집 앞 현관으로 배달되는 빠른 온라인 소매 업체와의 경쟁은 더욱 심화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장벽을 만나면서 아마존, 테무 같은 최저가 상품을 제공하는 온라인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났다. 여기에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창고 임대비용 급등, 절도 범죄 증가에 따른 수익 손실 등 악재가 겹쳤다. 특히 원자재와 물류비용 증가로 달러 스토어 제품 가격이 평균 30% 이상 오르면서 충성고객들이 발길을 돌린 것도 매출 하락을 부채질했다.

빅랏의 전 대표 마크 밀러는 99센트 온리 스토어 구하기에 나섰다. 그는 창업자 데이비드 골드와 1988년부터 친분을 유지해왔다. 밀러는 자신의 투자자 그룹과 함께 남가주 143개 매장 인수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직 99센트 스토어 임원이 포함된 인수팀을 구성하고 확장 보다는 고객들의 쇼핑 경험에 집중할 예정이다. 폐업 세일 이후 약 90일 동안 매장을 닫은 뒤 99센트 온리 등 저가 매장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전략을 다시 되살려 충성 고객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밀러는 다른 어떤 소매 매장보다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한다면 인플레이션 시대 소비자 구매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인플레이션에 위축된 소비자가 위로받을 수 있는 99센트 스토어가 다시 LA 아이콘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J네트워크

어떤 아름다운 ‘취미’

김현예
됴쿄 특파원

“당신은 왜 제 그림을 238점이나 사는 겁니까?” 화가가 물었다. 남자가 답했다. “당신은 산다, 판다고 말하지만 당신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 일본인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 작품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맡겨두는 것일 뿐입니다.” 귀 기울여 듣던 화가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좋습니다.”

1997년 10월 16일,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당시 나이 80세이던 미국 국민화가 앤드루 와이어스(1917~2009)는 그렇게 자신의 작품 238점을 스사키 카쓰시게(須崎勝茂·73) 마루누마 예술의 숲 대표에게 건넸다.

고흐도 모네도 로댕도 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세계적 작가들의 작품 5000여 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술관은 없다. 대지진 피해지처럼 ‘위로’가 필요한 곳에서 모든 비용을 대고 전시를 하거나, 고향인 아사카(朝霞)시 박물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뿐이다. 작지만 다부진 체구, 짧은 백발의 그를 지난 5일 도쿄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마루누마 예술의 숲 한·일 교류전’에서 만났다.

25살 나이, 큰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뛰어든 창고 임대사업. 회사는 일본의 고도성장기와 함께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다. 일에만 빠져있던 그에게 어느 날 조부가 한 마디 던졌다. “돈이 얼마가 있든 취미가 없는 인생은 쓸쓸하다.” 서른 살, 그가 도전한 취미는 도예였다. 동경예술대 학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뒤 뜻하지 않게 예술가를 꿈꾸는 학생들의 척박한 환경에 귀 기울이게 됐다. ‘학교를 졸업해도 작업실도, 돈도 없으니 꿈을 이루기 어렵다’는 거였다.

스사키는 그 길로 집 근처 대밭을 갈아엎었다. 그리고 1985년 가난한 예술가들을 위한 작업실을 세웠다. 마루누마 예술의 숲 레지던스의 시작이었다. 무명의 젊은 작가들을 이곳에 불러와 작업공간 제공은 물론, 재료비 지원, 전시회 지원을 하기를 올해로 40년. ‘아시아의 앤디 워홀’로 불리는 팝아트 작가 무라카미 타카시도 20년간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인구 14만여 명의 작은 도시 아사카시의 마루누마는 젊은 작가들 사이에선 꼭 한 번 가고 싶은 곳이 됐다. 8년 전부턴 한해 3명씩 한국 젊은 예술가를 초대하면서 한국 작가들의 발길마저 이어지고 있다. 전시회에서 만난 스사키 대표는 “취미로 인해 세상이 넓어졌고, 이젠 예술가를 키워내는 것이 내 취미가 됐다”며 활짝 웃었다. 평소 유니클로를 입고 다니면서도 반평생 낯선 예술가들을 선뜻 후원해온 아름다운 ‘취미’를 가진 이를, 우리 사회에서도 볼 날이 오길 바라본다.

봄맞이 핫딜 세일

매달 찾아오는 핫딜의 통큰 세일혜택!
이번 달에도 아낌없이 받아가세요~

HOT DEAL SUPER SALE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 AK백화점에 입점된 박홍근 홈패션

45년 고품격 디자이너 침구브랜드 & 신개념 에어워싱 기술

박홍근 PHG홈 한국산 봄 에어워싱 차렵이불

퀸사이즈 차렵이불 Blue, Pink, Mint ~~$130~~ $99

XXIO NEW 2024 다이아윙스 골프공 [6구 증정]

새로운 BiFLEX FACE와 진화된 New Active Wing

젝시오13 남성/여성용 아이언세트

5pcs 6,7,8,9,PW $1099.99 | 7pcs 5,6,7,8,9,PW,SW $1539.93

100% 천연 유기농 CBD, 안전한 힐링CBD (THC 0.03%함유)

만성통증, 염증, 불면증에 효능, 암 증상 및 우울증, 뇌전증 개선

풀 스펙트럼 유기농 CBD 통증크림

CBD1000mg $59.95 | CBD2000mg $79.95

태국의 인삼 흑생강! 자색 생강, 파비플로라, Black ginger

72시간 국내산 저온액 추출공법으로 생산한 끄라차이댐 마일드

끄라차이담/흑생강 파우치 70ml × 30packs

핫딜 출시 이벤트 특별세일 ~~$119.99~~ $99.99

DIY KIT 2박스 쌀누룩 고추장을 손쉽게 만들어 보세요!

인공조미료나 첨가물없이 우리 가족 먹을 고추장을 직접 제조

다산명가 쌀누룩고추장 DIY Kit

물붓고 섞으면 끝! 100% 한국산 원료 ~~$49.90~~ $34.50

2개구매시 $40 저자극 콜라겐을 꽉 꽉 담아 탱탱하게!

압도적 1위 토너패드! 탄력케어 주름개선 데일리 케어

메디힐 콜라겐 채움 패드 100매

1개 $22 | 2개 $40

핫딜 미주최대 한인 인터넷 홈쇼핑 213.368.2611

가게/매장 구입은 불가능하니, PC나 셀폰으로 QR코드 찍고,
온라인 Hotdeal.Koreadaily.com에서 구입해 주세요.

QR코드 찍고 핫딜에서 편하게 주문하세요!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H마트 주차장 건너편 —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중앙일보건물2층 —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뜨레쥬르 제과점 옆 —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 410.480.0100 • 800.564.4429

인터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항공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 DELTA · ASIANA AIRLINES · UNITED · AIR CHINA · AIR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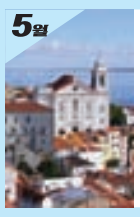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끝!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판매 $45
유럽유심 판매 $50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민권

채용공고 버스투어 가이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원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5월 **그리스&터키** 마감 *산토리니 옵션
지중해의 핵심 두나라 그리스와 터키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
10박11일 5/6~5/16 $2,890+항공


5월 **스페인&포르투갈** 마감임박
10박11일 5/7~5/17 $3,190+항공

5월 **파노라마 서유럽** 연합상품
정통 서유럽에 독일, 네델란드, 벨기에를 더했습니다.
12박13일 5/21~6/2 $3,890+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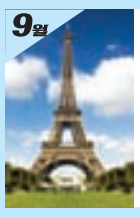
6월 **스위스 알프스** 마감임박
자연이 만든 웅장한 알프스와 환상적인 자연을 품고 있는 스위스일주
8박 9일 6/18~6/26 $3,990+항공

6월 **북유럽 4개국**
세계 최대의 복지국가들로 구성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10박11일 6/28~7/8 $5,290+항공

6월 **캐나다 록키** $2,290(항공포함)
5박 6일 6/30~7/5 (독립기념일 특선) 마감
8/14~8/19 (여름방학 특선)

8월 **알래스카 일주**
마타누스카 빙하, 콜럼비아 대빙하, 엑시트 빙하 모두 볼 수 있는 기회!
6박 7일 8/15~8/21 $2,990(항공포함)

9월 **영국일주** 얼리버드 스페셜
잉글랜드&스코틀랜드&아일랜드
11박12일 9/2~9/13 $5,890+항공


9월 **정통 서유럽** 얼리버드 스페셜 $3,490+항공
10박11일 9/10~9/20 10/9~10/19 마감 임박

원더풀투어 Wonderful T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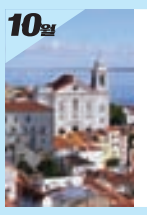
레나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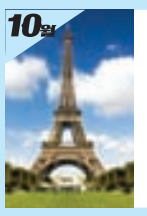
탑여행사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703.663.8534

윤태웅

9월 **그리스&터키** *산토리니 옵션
지중해의 핵심 두나라 그리스와 터키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
10박11일 9/25~10/5 $2,890+항공

10월 **독일 일주** 얼리버드 스페셜
괴퇴, 바흐 등 독일의 문학, 음악,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
13박14일 10/3~10/16 $5,690+항공


10월 **스페인&포르투갈** 마감임박
리스본, 세비야, 지브롤터, 미하스, 코르도바, 그라나다, 똘레도...
10박11일 10/8~10/18 $3,190+항공


10월 **프랑스 일주**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의 도시를 둘러보는 여행!
13박14일 10/17~10/30 $5,690+항공

얼리버드 스페셜
여행 3개월 전에 $3,000이상의 여행패키지를 예약하시는 고객분들께 $100 off
(할인은 출발일 기준이며 디파짓 고객만 적용합니다)

2024 크루즈 여행
RoyalCaribbean INTERNATIONAL Vision of the Seas
마감임박 **알래스카** $1990(인사이드,항공포함) 8/30~9/6 7박 8일
뉴잉글랜드 $1190(인사이드) 10/17~10/26 9박 10일
남부 **카리브해** $1390(인사이드) 12/7~12/19 12박 13일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4/22~5/02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마감
4/22~5/05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마감
13박14일 $4390+항공
4/22~4/30 **정통 동유럽** 8박9일 $3290+항공 마감
4/24~5/05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4/29~5/05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890+항공

5/03~5/12 **바르셀로나&지중해 크루즈**
9박10일 $4390+항공
5/06~5/16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5/07~5/17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5/21~6/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13일 $3890+항공
5/24~5/27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6/04~6/12 **아이슬란드 일주** 8박9일 $5690+항공
6/18~6/26 **스위스 알프스** 8박9일 $3990+항공 마감
6/18~6/28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11일 $2990+항공
6/28~7/08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마감
5박 6일 $2290(항공포함)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8/06~8/19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14일 $5990+항공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8/14~8/19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 7일 $2990(항공포함)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8일
인사이드 $1990(항공포함),
발코니 $2590(항공포함)
8/30~9/02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9/02~9/13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9/18~9/26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9/18~10/1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 14일 $4390+항공
9/25~10/1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890+항공
9/24~10/4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 11일 $2990+항공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10/03~10/16 **독일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마감임박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 11일 2990+항공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17~10/26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10일 $ 1190(인사이드)
10/22~10/31 **터키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회)
9박 10일 요금문의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 11일 2990+항공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11일 요금문의

11/12~11/25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13박 14일(시내산) $3980+항공
11/15~11/25 **이스라엘&요르단**
10박 11일 $2980+항공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1390(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7일 $2390+항공

Korea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 VISIT KOREA YEAR 2023~2024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한국방문의 모든것!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탑여행사가 직접 모시고 떠납니다
1차 4/16~ 4/26
2차 6/18~ 6/28
3차 9/24~10/4
4차 10/15 ~10/25 마감
5차 10/22~11/1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거제
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특전
1.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34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 / 외도+해금강유람선 / 정동진 레일바이크 / 서귀포 유람선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서울 롯데호텔 / 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 / 여수 소노캄 / 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 / 경주 라한셀렉트 / 속초 롯데리조트 / 제주 롯데호텔
4.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 고국 1~5차 모두 제주 빼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3박4일 **서남권** $899+항공 매주 일요일
4박5일 **동해권** $999+항공 매주 금요일
5박6일 **서남+제주** $1499+항공 매주 일요일
9박10일 **전국일주** $2149+항공 매주 일요일

동남아 여행
3박5일 방콕/파타야 $590+항공
3박5일 다낭 $499+항공
3박5일 푸켓 $599+항공
3박4일 대만 $690+항공
3박5일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3박5일 싱가폴 $790+항공
한국 왕복 비용으로 대한항공 항공권+동남아 여행이 가능합니다!

일본 여행
3박4일 동경 $999+항공
8박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3박5일 오사카 $999+항공

TMCI 고국건강검진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700/여 $750 미국국적 남 $910/여 $975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현대아산병원/서울대병원/가천대길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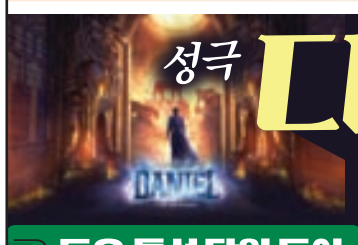
메모리얼 데이 특선

천섬, 몬트리올 퀘백 레이크조지
3박4일 5/24~5/27 $899

나이아가라 왓킨스글렌
2박3일 5/25~5/27 $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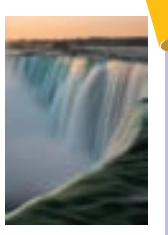
롱우드 가든
당일투어 5/25 $159

뉴욕 특선
1박2일 5/26~5/27 $450
디럭스 호텔, 브루클린 덤보, 베슬, 허드슨 야드 엣지 전망대, 스테이크 특식


성극 **다니엘** $199
5/16(마감), 5/30, 7/11, 8/1

토요 특선 당일 투어
네츄럴 브릿지+사파리 5월 4일 $125
노폭 보타니컬 가든 7월20일 $109

동부관광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섬/몬트리올/퀘백
플래츠버그/뉴욕
5박 6일 $1350 월출발
대형버스 출발일: 4/22, 6/24, 7/22, 8/5

미동부 베스트셀러
뉴욕·천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3박 4일 $899 월출발
대형버스 출발일: 7/8, 9/23, 10/21

동부 명소 핵심만 쏙쏙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2박 3일 $650 월출발
대형버스 출발일: 7/22, 9/16, 10/7

뉴욕
1박 2일 $399

단풍관광
컴버랜드 기차여행
당일투어 $159
출발일: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서부관광

탑여행사의 자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450+항공 월출발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

옐로스톤
3박4일 $950+항공 월,금출발

캐나다 록키
4박5일 $1190+항공 월,금출발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 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 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 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읍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명문도 좋지만 딱 맞는 곳 고려해야

자녀의 대학 결정 돕기

대부분 대학이 합격자 발표를 끝냈다. 이제 예상했든 아니든 간에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다. 지원한 모든 대학에서 합격증을 받지 못한 경우만 아니라면 진학할 대학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다. 최근 며칠은 자녀나 부모 누구나 주마등 같은 시간의 흐름에 아쉬움과 함께 묘한 긴장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감정을 뒤로 하고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대학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하지만 필요할 경우 도와야 한다. 아니 모든 상황이 필요한 경우다. 자녀는 세상을 아직 모른다. 이상적인 것은 자녀에게 100% 맡기는 것이지만 현실은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역대로 전문가들은 의사 결정을 위한 조건을 잘 알려주고 자녀가 결정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부모 의지로 압력 넣지 말고 재정 지원 등 찬찬히 살피고 위치, 학업 기회 등 고려해야

미국에서 대학에 합격했다면 이미 성인이고 스스로의 판단이 뛰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자녀는 이미 여러 가지 훌륭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결정이므로, 특히 이번 결정이 이제까지 했던 수많은 결정보다 더 의미있는 결정이고 앞으로 80년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몇 가지 조건과 방법을 소개한다. 이럴 땐 선배들의 경험을 듣는 것이 안전하다.

첫째, 특정 학교를 선택하라고 압력을 가하지 마라= 대학에 다닐 학생은 부모가 아니고 자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부모가 호감 있고 선호하는 학교로 자녀를 이끌거나 부모의 모교로 가도록 압력을 가하지 말라. 자녀가 갖게 될 경험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자녀가 원하는 학업 프로그램이 있고 자녀가 좋아하는 캠퍼스 문화가 있다면 유명 대학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유명한 대학이 왜 유명한지 명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는 것은 필요하다.

합격한 대학 중 한 곳을 결정해 등록의사를 밝혀야 하는 시점이다. 여러가지 고려 사항을 충분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누구나 학부는 80년간 따라 다니는 이력이 된다. [이미지투데이]

둘째, 다른 가정 자녀와 비교하지 마라= 대학을 선택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이 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대학 합격 또는 불합격을 친구나 친척의 자녀와 비교함으로써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전문가들은 각 학생이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만의 관심사, 열정, 추구하는 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학생이 대학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자원을 활용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셋째, 재정 지원 오퍼를 비교하라= 대학 등록금을 지불하는 것은 가족 전체에게 어려운 일이므로 재정 지원 패키지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진학 대학 결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는 부모의 지도가 매우 중요하다. 재정 지원 패키지 중 그랜트나 장학금이 얼마나 되는지, 졸업할 때까지 갚아야 할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비교해야 한다. 또한 가족들은 잠재적인 학자금 대출 부채를 줄이는 방법을 잘 알아봐야 한다. 특히 워크 스터디의 경우, 일부 캠퍼스에서는 식당과 피트니스센터 일자리만 제공하는 반면 다른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이 선택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법으로 교수와 연구를 수행하는 일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제까지 전문가들은 가장 싼 학교를 가라고 말해왔다.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명문일수록 빚 없는 졸업생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눈에 보이는 수치가 모두가 아닐 수 있으니 잘 고려해야 한다.

넷째, 경제성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라= 대학 등록금에 관해서 처음부터 가족이 솔직한 토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고 장학금 , 보조금, 학비 융자 , 워크 스터디 프로그램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선택 사항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 학자금 계획에 처음부터 자녀를 참여시킴으로써 가족 모든 사람이 이런 중요한 결정에 대해 정보를 얻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각 대학의 학비와 예상 부채를 보여 주는 엑셀 표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 최근 수년간 미국 대학 졸업생의 대다수는 일반적으로 1인당 수만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빚을 안고 졸업했다.

다섯째, 학업 기회를 평가하라= 해외 유학 기회를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대학을 찾는 것이 좋다. 전공을 공부할 기회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물론 한인 자녀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의 경우 이런 기회가 충분한 편이다. 다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므로 따져보는 것이 좋다. 많은 대학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특정 과목을 자유롭게 전공하는 학생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자녀가 공학도를 꿈꾸고 있다면, 보다 명문인 A대학의 문과대학에 등록하는 것이 B대학의 공과 대학에 등록하는 것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 특히 A대학에서는 전공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전공에 따라서 특히 공대나 경영대는 그런 경우가 많다.

여섯째, 대학의 성과를 알아봐라= 자신의 직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각 학교가 제공하는 인턴십과 다른 기회를 비교해야 한다. 또한 각 전공과 대학의 4년 졸업률, 부채 부담, 평균 연봉을 조사하여 자녀의 대학 선택이 미래 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조언한다. 특히 대학 소재지가 졸업생에게 제공되는 지역 취업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졸업 후 어디에서 살고 일하고 싶어하는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병희 기자

» 3면 '대학'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지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촌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야곱의 사닥다리
www.jjlcontractor.com
703-835-0945
ROOF
20년 이상된 지붕! 점검 필수! (상담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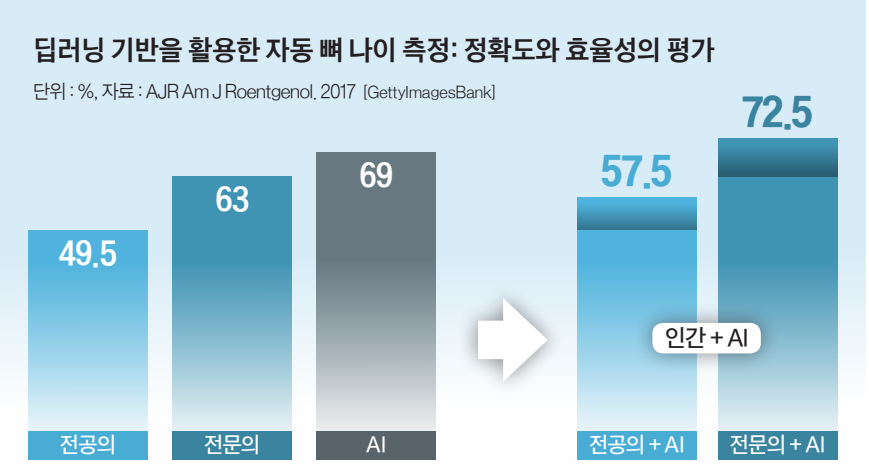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척추 한방 클리닉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척추교정, 물리치료, 한방, 침술 및 마사지 등
동·서양의 치료를 병행한 합리적 치료시스템으로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편안하게 치료받으세요~
환자분들이 오직 편안하게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보험처리,
서류작성 (변호사 선임) 등
복잡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친절히 도와 드립니다.
진료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495 우체국 Shell 236 395 Little River Tnpk. John Marr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의 한의사 (NCCAOM)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말벗 되고, 가르치고, 협업하고 … AI, 인간의 동료가 되다

스스로 지식 습득하고 조합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지능 진화

구글서 진행 마젠타 프로젝트
음악가·예술인들 AI와 공동 창작

팀원간 대화 살펴 치우침 경계
주식 거래 위험성·기회 코치도



아이들의 키 성장은 부모들에게 성적만큼이나 큰 관심의 대상이다. 성장판은 팔과 다리 등의 뼈 끝부분에 남아있는 연골조직으로, 이것을 통해 뼈의 성장이 일어난다. 흔히 말하는 성장판이 닫힌다는 것은 키의 성장이 멈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들이 영상 판독을 통해 성장판을 살피고 뼈의 나이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다. 북미 영상의학 학회가 인공지능 뼈 나이 읽기 대회를 열었을 정도로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는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2017년 한국의 아산병원 의사들이 발표한 인공지능 뼈 나이 측정 논문이다. 이 논문에는 전공의, 전문의, 그리고 인공지능이 각각 뼈 나이를 측정해 이를 비교해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뼈나이 읽기, AI가 전문의보다 정확

먼저 각자가 측정하였을 때의 정확도는 각각 49.5%, 63%, 69% (그래픽 참조)로 인공지능의 측정이 경험 많은 전문의와 2년 차 전공의보다 나은 결과를 보였다. 사실 인공지능이 인간과의 대결에서 이기는 것을 자주 보았기에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니다. 1차 측정 후 의사들에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측정을 하도록 했다. 여기서 전공의와 전문의의 정확도는 각각 57.5%와 72.5%로 높아졌다.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사실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전문의에게 인공지능을 제공했을 때 인공지능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전공의의 경우 인공지능을 제공해도 인공지능 단독보다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런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앞으로 인공지능이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고 사용될 때 어떤 전문가가 더욱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어떤 전문가가 그렇지 못할까.

불과 50~60년 전 우리는 도구 사용이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믿었다. 이런 오래된 믿음은 제인 구달이라는 동물학자가 침팬지를 아주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무너졌다. 그는 침팬지들이 긴 풀 줄기를 땅속 구멍에 넣어 마치 낚시를 하듯 개미를 낚아서 먹는 것을 발표해 큰 충격을 줬다.

그 이후에도 인간만의 고유 행동을 밝히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가장 명백하게 다른 점은 인간이 사회적 접촉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이다. 1만 년 전에 태어난 침팬지는 생존에 관한 것을 본능적으로 배우고 번식하고 죽는다. 지금 태어나는 침팬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인간은 1만 년 전의 인간과 비슷하게 태어나지만, 사회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전수한다. 학자들은 그 바탕에 추상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 후 문자와 책의 발명 그리고 인터넷으로 표현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인류의 지식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인간은 학교에서 학습하든, 책을 읽든, 인터넷으로 문서를 보든, 온라인에서 토론하든 결국은 직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학습한다. 즉, 인간의 지식 습득과 축적은 대부분 선생님, 동료, 책 저자 등 다른 사람과의 지식 교류와 경험을 통해 완성된다.

현재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다른 한편의 불편함은 인간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새로운 지능에 대한 불안감이다. 여기서 지능이란 지식을 이용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가 처음 인공지능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질문의 핵심은 "어떻게 기계가 지능을 가질 수 있을까?"였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기존의 지식을 직접 넣는 방식에서 기계 학습이라 부르는 데이터를 넣어 주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데이터 방식에서는 지식을 직접 넣어주는 대신 사례(데이터)를 넣어주고 기계가 패턴을 인식해 지능을 구현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특히 인공 신경망으로 대표되는 지금의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은 모두 데이터 기반의 기계학습 방식이다.

알파고의 성공으로 대표되는 이 기계학습 방식은 지금의 인공지능의 표본으로 자리 잡았다. 이 인공지능은 스스로 지식을 만들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우리는 의료적 판단, 사물 인식, 불량 인식, 게임 등에서 이 새로운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는 것을 목격했다. 기계학습에 더해, 현재 우리는 챗GPT로 대표되는 '거대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이란 새로운 타입의 지능과 마주하게 됐다. 이 지능 역시 이전의 딥러닝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기계가 직접 문장을 읽고, 또 최근에는 동영상을 시청하며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이 인공지능이 표현(생성)하는 지식이 기존 지식의 적당한 조합이며, 의미론적 실재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지구 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존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의 조합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지식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깊이 고민하게 될 것이다.

AI 도움 받으면 전문가 능력도 '쑥쑥'

지금까지 발전해온 생각하는 기계는 우리의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계산기는 숫자 계산을 빠르게 보여주었고, 컴퓨터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실행해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금의 인공지능은 단순 의사 결정 보조 수단에서 벗어나 우리의 학습과 관련해 사회적 시스템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제 기계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코치가 될 수 있으며, 매니저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의 고유 영역이 사회 시스템을 통한 지식 습득이었다면, 이제 이 새로운 지능은 사회적 지식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요즘 회사의 많은 젊은 직원들은 업무 중 챗GPT를 켜놓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 이상의 직장인들은 이 인공지능을 동료로 여긴다. 현재 구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젠타 프로젝트에서는 많은 음악가와 예술인들이 인공지능 동료와 함께 새로운 작품을 작업하고 있다.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은 나의 말벗, 나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교육자, 나를 돌보아 주는 간병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코치의 역할도 하고 있다. 팀원 간의 대화를 살피며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을 경계하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판례를 스스로 찾아 주고, 내가 거래하는 주식에 대한 위험성과 기회도 알려준다.

앞서 예시로 보여준 뼈 나이를 읽는 인공지능 역시 도구로 보기보다는 전문가의 판단으로 볼 수도 있다. 이때 인간은 선생, 동료에게 배우듯 이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통해 배우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의 지식 교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그 대상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지능일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우리는 이 새로운 지능과 어떻게 교류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지 아직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 뼈를 읽는 문제에서 보듯 전문 지식이 많을수록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인간을 통해서만 배운 전문가가 인공지능을 추가해 학습한 전문가보다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특히, 단순 결과만 던져주는 시스템에서 설명 가능한 인공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전달하는 지식의 양과 깊이는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분야든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능력에 대해 주의를 갖고 봐야 할 것이며,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전문 지식 깊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권하고 싶다.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4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십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 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 Tel: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방2 + 화2 $41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 + 화3, 차고2 $800,000
센터빌 타운홈 방3 + 화3.5 1,496 sqft, 1993년 $535,000
센터빌 타운홈 방3 + 화3 1,360sqft, 1985년 $500,000
꼭,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요!!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 리 브로커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 301-399-0140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D.C. / 301-399-0140 13001 I 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노벨상 확 줄자 … 도쿄 명문 공대·의대 통합한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외국 국적 포함) 28명에 과학분야에서만 25명. 아시아 지역에선 압도적인 성과지만, 정작 일본 내부에선 '노벨상 강국'이란 명예가 옛말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0년대 들어서는 수상자가 단 한 명뿐인 데다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우수 논문도 중국 등 후발주자에 뒤지는 상황이 덮쳤다. 일본 과학계는 연구 역량의 전반적인 하락을 원인으로 진단하면서 "이러다간 노벨상 수상자가 급감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걱정한다.

일본을 대표하는 이공계 명문대의 변신에도 이런 위기감이 깔려 있다. 지난 3일 오전 보슬비가 내리는 도쿄 메구로구 오오카야마의 도쿄공업대 정문은 입학식을 맞아 학교 현판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신입생과 가족들로 북적였다. 이들 중 누군가 "곧(학교명이) '도쿄과학대'가 된다"고 말했다.

1881년 개교한 도쿄공대는 도쿄대·교토대·히토쓰바시대와 함께 일본의 대표적인 명문 국립대 4곳, 이른바 '도쿄잇코(東京一工)'의 한 축이다. 그런 도쿄공대가 오는 10월 도쿄의과치과대(1928년 설립)와 통합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통합 대학의 이름이 도쿄과학대다. 도쿄공대와 도쿄의과치과대 모두 일본 문부과학성이 선정한 연구 역량 최고 수준의 10개 대학인 '지정국립대'에 속한다.

한국처럼 저출생에 따른 학생 수 감소가 심각한 일본에선 경영난을 우려한 대학 간 통합이 종종 일어난다. 그러나 이 두 대학처럼 '대입의 승자'로 군림하던 학교들이 통합한 사례는 없다.

지난 3일 열린 일본 도쿄공업대학 입학식(왼쪽)과 도쿄의과치과대 캠퍼스. 일본 최고 명문 국립대인 두 학교가 10월 도쿄과학대로 통합한다. 도쿄과학대는 경쟁력 있는 외국인 교수와 유학생을 대거 유치하기 위해 영어를 '제2 공용어'로 쓰기로 했다. 도쿄=오누키 도모코 특파원

도쿄공대·의과치과대 10월 통합

일본 2020년대 노벨과학상 단 한명
과학연구 강화위해 대학끼리 합심
영어 공용어로 써 유학생 유치도

일본의 이공학, 의·치학을 대표하는 두 국립대가 통합을 결심한 건 연구 분야를 확대하고, 연구비·인력 확충으로 그동안 정체된 연구 역량을 끌어올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통합을 먼저 제안한 건 도쿄의과치과대였다. 팬데믹 기간 환자를 치료하면서 연구력을 키우려면 공대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당초 도쿄의과치과대(학생 수 3000여 명)보다 규모가 큰 도쿄공대(1만여 명)에선 대학 정체성을 잃을까 우려하는 신중론도 나왔다.

통합의 촉매는 2022년 일본 정부 주도로 조성된 대학펀드였다. 일본 정부는 10조 엔(약 88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의 운용 수익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제탁월연구대학'에 최대 25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한 학교당 수백억 엔에 이른다.

도쿄공대는 심사 통과를 위해 도쿄의과치과대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두 대학은 이미 통합 대학명(도쿄과학대)으로 국제탁월연구대학 선발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두 대학 모두 통합의 최고 메리트로 연구 분야 확대와 연구비·연구인력 등 연구 역량의 확충을 꼽는다. 이를 통해 두 대학이 종래 투자해온 기초과학·응용과학 분야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진단 및 치료법, 의공학 융복합 연구 등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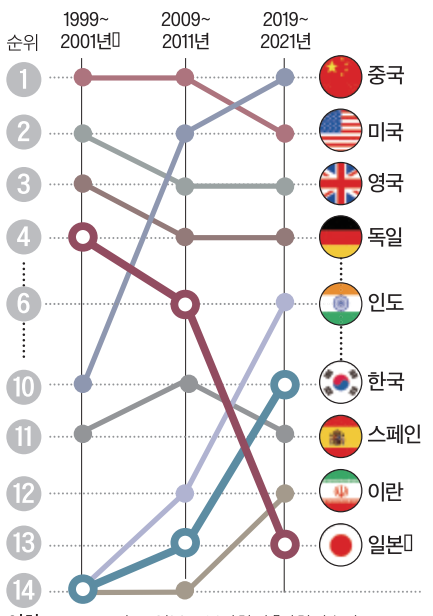
문부과학성 산하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과학기술지표 2023'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일본 연구자의 논문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우수 논문(피인용 상위 10% 이내)의 양이 1999~2001년에는 세계 4위 수준이었으나, 2019~2021년엔 13위로 추락했다. 여기에 2021년을 마지막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자 일본 매체에선 '줄어드는 노벨상 인재, 2030년대엔 수상자 더 감소'(니혼게이자이신문), '연구력의 장기 침체를 막아야'(요미우리신문) 등의 기사들이 이어졌다.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오스미 요시노리(大隅良典) 도쿄공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과학기술 정책에서 단기적인 경제 효율성이 우선순위가 돼버렸다"고 개탄했다. 연구개발(R&D) 지원금이 줄고, 젊은 연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면서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것이다.

도쿄=오누키 도모코 특파원

글로벌 피인용 상위 10% 이내 논문 수

※각 분야에서 피인용 횟수가 상위 10%에 드는 논문 수의 3개년 평균.



자료: 일본 문부과학성 『과학기술지표 2023』

» 1면 '대학'에서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갓 졸업자들은 첫 직장을 대학 인근 지역 경제권에서 찾게 된다. 자녀들은 학교 웹사이트에서 최근 졸업생의 취업률과 초봉 데이터, 대학원 성과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다.

일곱번째, 대학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 하라= 일부 학생들은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찾는 반면, 다른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타주로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녀가 대도시 생활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조용한 작은 마을을 선호하는지 고려하고, 인근 지역의 다양한 기회를 살펴보고, 대학 위치가 자녀의 관심과 목표에 맞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선택의 여지가 2~3곳으로 꼽히면 하룻밤을 묵어 보게 하라. 대부분의 입학 사정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중에만 제공되는 호스팅 프로그램이 있다. 학교의 공공 안전 웹사이트나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연간 보안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는 캠퍼스 안전 통계를 조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북가주의 경우, UC버클리 합격을 좋아했지만 캠퍼스 앞의 상황을 보고 다른 학교로 돌아선 합격자도 있었고 남가주의 경우에는 USC의 학교 앞 환경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고려는 명문 여부나 대학 순위와 상관이 없다.

여덟번째, 딱 맞는 곳을 찾는데 집중하라=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학업, 과외활동, 위치 및 캠퍼스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적합성에 중점을 둘 것을 조언한다. 학생의 교육 경험에 중요한 요소 목록을 작성해보고 빠져서는 안되는 것을 제공하는 학교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대학에는 캠퍼스 고유의 에너지, 공감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 또는 느낌이 있다. 대학이 맞다고 느끼고 학업 프로그램 및 자원과 같은 다른 요소가 일치한다면 아마도 딱 맞는 곳일 수 있다.

아홉번째 , 캠퍼스를 다시 방문하라=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봄에 등록을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합격자들이 일상적인 캠퍼스 생활을 경험하고, 투어하고, 재정 지원 세션에 참석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 등록을 돕고 있다. 자녀가 여러 학교에 합격한 경우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더라도 가능한 많은 학교를 방문할 것을 조언한다. 캠퍼스에 있는 동안 자녀가 스스로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보는 것도 좋다. 합격자들은 수업을 듣고, 학과 사무실을 방문하고, 기숙사를 둘러보고, 직업 및 복지 센터를 방문하고,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 수 있다. 또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 캠퍼스 커피숍을 방문하고, 재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재학생들은 자신의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기꺼이 공유한다.

J 워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가족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Brown University BA Degree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Korean Dail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메디메디를 위한 다양한 혜택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플랜
/Part C (HM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저렴한 약 값을 위한 회사별 비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703-200-1412
앤디 김
VA Lic# 639047

에듀 포스팅

성인으로 필요한 독립성 잘 갖추려면…자립적 성장과 전인적 발달 중시해야

대입 카운슬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 공부가 필요하다. 단편적 시각을 가진 카운슬러는 위험하다. 그래서 본교에서는 모든 카운슬러들이 전문 코스를 밟고 깊이 공부하여 포괄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필수로 하고 있다. 버클리대 대입 카운슬러 코스를 밟는 선생님이 독서 클럽에서 'How to raise an Adult'라는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을 봤다. '어른으로 키우는 법'을 펴낸 스탠퍼드대 교수인 저자는 대학 입학사정팀에서 일을 하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에서의 중요한 가치와 기준을 제시했다.

스탠퍼드 교수인 저자 줄리 리코트하임즈는 대학 입학사정에서 실제 학생들이 어떤 면모를 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삶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회복력, 그리고 자립성 등을 중요하게 꼽았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명문대들이 추구하는 홀리스틱 리뷰의 인성 부분과 일치한다. 단순히 학문적 성취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선호된다. 또한 학생들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실패와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당연히 스탠퍼드 대학은 이러한 면모를 갖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부모로서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까?

▶과잉 양육 vs 자립적 성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태어나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는 언제 무엇을 어느 만큼 도와주는 것이 좋은지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다. 그래서 때로는 과잉 양육을 하기 쉽다. 이는 부모가 너무 많이 개입하여 자녀의 성장과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너무 많은 일에 부모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려주다 보면 막상 자녀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중요한 성장 경험을 할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고 시도하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과잉 양육은 자녀가 자립성을 잃고, 필수적인 생활 기술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에 문제에 부딪혀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며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겠다.

▶삶의 도전에 지지 않는 아이

아이들에게 자립성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일상적인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인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삶에서 문제에 직면할 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대안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실패를 기회로 보고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를 갖게 되기에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어른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소중한 경험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성장할 것이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삶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실패와 어려움에 대한 회복력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교육의 진정한 목적, 전인적 발달

교육은 단순히 학문적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다. 부모는 자녀가 문제 해결 능력, 회복력, 자립성 등 삶에서 필요한 기술과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줄리 스코트하임즈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다. 학습을 통해 자녀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하고,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인성 발달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그녀는 강조한다. 요리, 재정 관리 등 자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을 가르치고 대학 이후에도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세상은 호기심과 탐구심이 높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변화하고 발전 해 나간다. 따라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것 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올바른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스탠퍼드대 교수이자 입학처장이었던 줄리 리콧헤임즈의 조언은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성을 갖춰졌으며, 전인적으로 발달한 학생이 있다면 스탠퍼드 대학뿐 아니라 다른 명문대와 기업에서도 이들을 탐을 낼 준비된 성인을 키울 기준을 제시해 준다.

새라 박 원장·A1칼리지프렙

대입 들여다보기

STEM 분야 여전히 여성 진출 부족…근무시간 조정하고 롤모델 세워야

지난 10여년 간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수학, 과학, 통계 등의 분야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 관심이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학, 테크널러지, 엔지니어링, 수학을 뜻하는 'STEM' 분야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인구에 비해 불충분하게 대표되고 있다.

2023년 STEM 업계에서 여성의 비율은 8%에 불과해 성별 간극이 두드러졌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미국에서 STEM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은 24% 정도를 차지한데 비해 유럽연합(EU)에서는 17%, 일본은 16%, 인도에서는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격차는 근본적으로 STEM 산업의 잠재적 발전에 한계가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별 간극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직업 창출과 경제 성장을 불러오고, 리서치와 서비스 면에서도 통찰과 질이 향상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별의 간극을 불러오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편견이다.

남성의 특성상 STEM에 더 적합하고 강하다는 편견이 팽배해 있어 여성들이 STEM 관련 교육과 직업을 추구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

둘째, 롤모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STEM 분야에서 리더십 자리에 오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래서 롤모델과 멘토가 될 만한 여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셋째, 무의식적인 편견이다.

인재를 고용하거나 승진시킬 때 그리고 펀딩을 할 때 무의식적인 편견이 있어서 여성들이 STEM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쉽지 않다. 그래서 비율상 여성이 현저히 적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워라밸', 즉 일과 삶 사이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STEM 직업은 업무 강도가 세고 근무시간이 긴 경우가 많다. 일부 여성들은 가정에서 맡는 책임과 병행하기 위해 STEM 직종을 피하거나, 파트타임으로만 일하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이 자기 계발을 충실히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간극을 좁히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학창시절부터 직업 현장까지 다양한 전략을 시도해볼 수 있다.

첫째는 여학생들이 STEM 교육을 추구하도록 학교가 독려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STEM 과목들을 여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스스로 편견에 갇히지 않도록 지원하며, 롤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코딩할 수 있는 여학생들'(Girls Who Can Code), '코딩하는 흑인 여학생들'(Black Girls Code), '100만명의 여성 멘토들'(Million Women Mentors) 같은 프로그램들은 여학생들이 STEM 분야에 관심을 가지도록 영감을 주는 데 성공했다.

많은 여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STEM 쪽으로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둘째는 STEM 산업에서 여성들을 일꾼으로 포용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기업과 기관들이 무의식적인 편견이 있음을 인지하고 업계에 포용성의 문화를 배양하기 위해 신경 쓸 수 있다. 여성을 위한 멘토십과 스폰서십을 제공하고,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며, 가정에서의 책임과 직업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들을 위해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셋째는 여성 롤모델을 세우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것이다.

STEM 분야에서 가시적으로 롤모델이 되는 여성을 확보한다면 여학생들이 STEM 직업을 추구하도록 용기를 북돋워주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직원을 고용할 때 기업과 기관들이 다양성을 배려하고, 모든 단계의 리더십 포지션에서 여성의 승진을 독려할 수 있다.

넷째는 직업적인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훈련과 멘토십, 네트워킹 행사 등을 통해 여성들이 스킬을 개발하고 자신감을 함양시켜 STEM 분야에서 성공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장애물을 허물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 간 급여 차이, 펀딩 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등을 없앨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가정을 꾸릴 때 육아와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더 많이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가정 친화적인 고용정책을 검토해볼 수 있다.

빈센트 김 카운슬러 어드미션 매스터즈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76전 77기’ 윤상필 생애 첫 우승

14일 열린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티샷을 하는 윤상필. 2017년 KPGA 투어에 뛰어든 이래 첫 우승을 차지했다. 윤상필은 올 시즌 목표를 3승으로 잡았다. [사진 KPGA]

KPGA 박상현 4타 차로 꺾고 정상
“올해 목표 3승, 순조로운 출발”

‘미완의 기대주’ 윤상필(26)이 생애 처음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정상에 올랐다. 올 시즌 개막전에서 쟁쟁한 경쟁자들을 모두 제치고 우승하며 무명 돌풍을 예고했다.

윤상필은 14일 강원도 춘천시 라비에벨 골프장 올드코스에서 열린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최종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잡아 나흘 합계 18언더파 266타로 우승했다. 챔피언조에서 함께 경쟁한 베테랑 박상현(41)을 4타 차이로 꺾고 기쁨의 축하 물세례를 받았다. 우승 상금은 1억4000만원이다.

1998년생인 윤상필은 어린 시절 축구를 했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골프의 길로 들어섰다. KPGA 투어 무대는 2017년부터 밟았다. 1m85㎝의 큰 키를 활용한 장타가 돋보였지만 숏게임의 약점을 보완하지 못해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지난 2018년 9월 추천 선수로 출전한 휴온스 셀러브리티 프로암에서 준우승한 게 이전까지 개인 최고 성적이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숏게임을 집중 보완한 윤상필은 개막전에서 달라진 플레이를 선보였다. 1라운드에서 안정적인 퍼트로 버디만 10개를 잡아 단독선두로 치고 나갔다. 이어 2라운드 10언더파 공동선두, 3라운드 11언더파 공동 2위로 상위권을 유지한 뒤 마지막 날 7타를 줄여 자신의 77번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2언더파 단독선두 박상현에게 1타 뒤진 채 최종라운드를 출발한 윤상필은 전반 시작과 함께 3연속 버디를 잡아 흐름을 탔다. 이어 6번 홀(파4)과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해 3타차 단독선두로 올라섰다. 경쟁자 박상현이 파3 12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윤상필과의 격차가 4타로 벌어졌다.

기회를 잡은 윤상필은 13번 홀(파4)에서 페어웨이와 그린을 정확하게 지켜 1타를 줄였다. 파5 15번 홀에서는 투 온 공략을 통해 쐐기 버디를 낚았다. 이어 4타의 리드를 안고 맞이한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도 안정적인 플레이로 파를 잡아 우승을 확정했다. 지난해 상금왕에 오른 박상현은 왼쪽 발목 부상을 안고 개막전 우승에 도전했지만, 마지막 날 통증이 심해지면서 통산 13승째를 다음으로 미뤘다.

윤상필은 “얼떨떨하다. 축하 전화를 받으면 비로소 실감이 날 것 같다”면서 “주변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정말 많다. 특히 가족들과 코치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올해 목표는 3승이다. 일부러 목표를 크게 잡았는데, 개막전에서 일단 첫 번째 우승을 만들어내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앞으로 계속 우승을 추가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같은 날 인천 영종도 클럽72 골프장 하늘코스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에선 박지영(28)이 22언더파 266타로 정상을 밟았다. 마지막 날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타를 줄여 16언더파의 정윤지(24)를 여유롭게 제쳤다. 통산 8승째로 우승 상금은 1억8000만원이다. 지난해 3승을 휩쓴 박지영은 이번 대회에서 3라운드까지 보기를 적지 않았다. 만약 최종라운드에서도 보기 없이 우승했다면 역대 KLPGA 투어 최초로 72홀 노보기 우승을 기록할 수 있었지만, 16번 홀(파3)에서 유일한 보기가 나와 간발의 차로 대기록 달성을 놓쳤다.

고봉준 기자

김형석 히트곡을 하모니카로 … “작업하다 옛사랑 추억 떠올라”

〈작곡가〉

하모니스트 박종성과 컬래버 앨범
“하모니카 소리와 사랑 노래 결 같아”
김형석이 작곡한 4000여 곡 중
박 ‘늦은 후회’ 등 10곡 골라 편곡

“하모니카 소리를 듣고 있으면 추억이 떠올라요. 지나간 사랑을 이야기하는 제 노래와 결이 비슷하죠.” 작곡가 김형석(58)이 자신의 히트곡으로 하모니카 연주 앨범을 만들고 싶다는 하모니스트 박종성(37)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 이유다. 양념처럼만 소비되던 하모니카를 메인으로 내세운 것도 재밌어 보였다고 한다. 지난 2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형석은 “언더그라운드가 오버그라운드가 되는 시도라 생각했다. 작업하면서도 힐링이 됐고 추억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국내 1호 하모니카 전공자 박종성은 클래식 음악을 주로 해왔다. 그는 “어떤 장르에 속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좋아하는 음악을 하모니카로 연주하는 사람이고 싶다”며 “이번 앨범 작업은 김형석 작곡가의 팬으로서 그의 히트곡을 연주해보고 싶은 마음에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12일 발매된 연주 앨범 ‘그대, 다시’의 타이틀곡은 변진섭 ‘그대 내게 다시’다. 앨범명도 이 노래에서 따왔다. 그 밖에 김광석 ‘사랑이라는 이유로’, 박용하 ‘처음 그날처럼’, 성시경·아이유 ‘그대네요’, 유미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엄정화 ‘하늘만 허락한 사랑’, 보보 ‘늦은 후회’, 신승훈 ‘아이 빌리브’, 김혜림 ‘날 위한 이별’, 나윤권 ‘나였으면’ 등 10곡이 담겼다. 4000곡 넘는 김형석 작품 가운데 10곡만 뽑는 건 어려웠다. 박종성이 선정했고 편곡했다.

김형석이 작곡한 노래들은 자주 리메이크됐다. 그는 자신의 노래가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를 “시대는 변했지만, 인간이 가진 본성은 그대로다. 감성은 어느 시대나 통한다. 기술의 발달로 사운드는 많이 바뀌어 가겠지만, 감성은 앞으로도 그대로일 것”이라고 봤다.

박종성 X 김형석 프로젝트 ‘그대, 다시’. [사진 리웨이뮤직앤미디어·노느니특공대·뮤직앤아트컴퍼니]

두 사람은 20년 넘는 나이 차에도 이번 작업을 하며 묘한 공감대를 경험했다. 박종성은 ‘그대 내게 다시’에서 첫사랑을, 김형석은 ‘사랑이라는 이유로’에서 작곡 당시의 연애사를 떠올렸다. ‘사랑이라는 이유로’의 피아노 연주를 직접 한 김형석은 “이 곡은 내가 두 번째로 작곡한 노래이자, 가사에 내 이야기가 들어 있다”며 “당시 좋아했던 친구도 생각나고, 작곡가로 데뷔하게 해준 김광석 형에 대한 고마움도 떠올랐다”고 전했다. 이번 앨범은 김형석에게 과거뿐 아니라 미래도 그려보게 했다. 또 가요시장은 급변해도 가장 중요한 건 ‘본질’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한 작업이었다. 그는 “시대에 잘 적응하고 변화해야 하면서도 나를 잃지 말아야 한다. 나를 잃는 순간 다음도 없다”며 “좀 더 나이가 들면 힐링 음악을 할 것 같다. 이번 작업도 그 일종이라서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바랐다.

지난해 부친상을 겪으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더 짙어졌다. 김형석은 자신을 지금과 같은 작곡가로 만들 게 “음악 선생님 아버지와 피아노를 전공한 어머니”라고 말했다. “나이 육십이 가까워지니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책임감이 더 늘었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다음 행선지가 있기에 지금을 잘 준비하고 싶습니다.”

황지영 기자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사업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시간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4월 구인광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톤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O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털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센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염가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 마케팅〉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 신입환영
- MS Office 사용가능자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 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 풀타임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 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펀서 가능
▶ Email: employeehire13@gmail.com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문의: 571-348-3723

WUV대학교 입학처 (이중언어)
풀타임 or 파트타임
이력서제출: hr@wuv.edu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 수당.
문의 : 571- 332-2101(문자) 또는
edk. 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희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첸틀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 분
ceo@hanmipost.com *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타임/ 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에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패니쉬) 가능한 유,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luvacct1986@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챈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i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챈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1) 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2) 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240-477-5683

닥터 오피스 프론트 일하실 성실하신 분 구합니다.resume 보내 주세요
slim@gastrohealth.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 분
연봉 5만(현지 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 스폰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세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직원모집
*College Park Area, MD
- Shift Manager 교대근무관리자
사무실 관리자/정육부 관리자/ POS 지원/ Pricing Analyst/ Lead Cashier
*Capitol Heights Area, MD
-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 301-333-2209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 (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몰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자 스시 & fried chicken / 파타임 & 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쉬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쉬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우실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베트남 식당.
주 2일 일하실 서버구함. 초보자도 환영.
240-678-5395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페이셜/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센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얼터레이션〉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스테포드 지역 픽업 수선&캐쉬어
Tel. 703-628-9100

픽업 바느질 하실 분(파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얼토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트·루트원 선상
703-501-3335

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 분
파타임/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 분
연락처: 703-300-4959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생활안내 703-281-9660,1(문자)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한미 홈헬스
(Hanmi Homehealth)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십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난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 jumbo.food@gmail.com
전화 :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렌트 수입 좋은 콘도 4채 매매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200/m
▶ 매매가: $599,000 (Cash Only)
문의
AGENT 환영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자동차 메케닉 구함 (애난데일)
571-243-9899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 메케닉 일하실 분 폴스쳐지
703-577-5866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전화문의: 703-678-1749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넷,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 메니져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베네펫,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연합감리회 워싱톤교회 지휘자 모집
-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 서류 : 이력서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 라이센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워싱톤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 자격 :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휘경력)
- 제출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 제출할 곳 :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파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고객마케팅관리 하실 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 분들 모십니다.
- 최적의 위치 ·시설
-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 하실 분
703-798-7270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건물관리인 (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연락: 240-903-0777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 분
훼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덕로드.
202-271-2726

버크 태권도 사범/보조사범 (파/풀타임),
방과후 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 (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베이비씨터 구함 Vienna , 주5일 , 1-6pm ,
아기 픽업가능한 분 , 성실한 분
213- 839-3735

밤10시부터 청소 하실분들.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버지니아 센터빌
410-825-7941

Fairfax 입주 간병인 구함
87세 여성 모실분. 요리, 목욕, 밤 간병인
응급상황시 투입, 운동, 마사지
6일 근무, 낮시간. $5000 cash 매달
703-568-8024

에버그린 헬스 메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세일즈(Marketer) 직원,
한국어/영어 가능자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4115 Annandale Road, suite 105
Annandale, VA 22003

VA첸틸리에 새로 오픈하는 shoe repair, alteration 기술자 각각 구합니다.
703-340-4777 Lee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아난데일 홈디포 옆 위치.
넓고 밝은 3 level 타운홈, 방3, 화 2+2.5
전체마루, 덱, walkout, 5월 초 입주
703-725-7871

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웍아웃 베이스먼트 (화장실 포함). 전체3 층, 방 4+ 화장실 3.5.
▶703-244-3453

콜롬비아 싱글홈 월$3,800
방5, 화4, 차고,2 리버힐 학군
410-599-1800 문자요망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H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카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 전체 렌트 .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펙스 타운홈 $3,000. 방3 화 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콘도 렌트〉

Manassas 콘도 $1,600 / 즉시 입주 가능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 집 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0s.f(넓은 size) Costco 가까운 동네
▶703-477-3114

Alexandria 다운타운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페어펙스 웨그망 걸어서 5분. $1,150
개인 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

〈방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연락처: 301-648-2422

애난데일 메시야장로교회 뒤편 타운하우스 지하실 방 하나 렌트. 목욕탕, 화장실
703-887-5173

센터빌 CVS 근처, 지하 전체 렌트(거실, 화장실, 방, 키친, 냉장고), 간단식사, 출입문 별도 유포 $1,300
571-243-7027 (문자)

애난데일 방1개, 부엌, 리빙룸, 샤워
유포, 인터넷, 세탁기 ($1,300)
703 -618-6634

MD Silver Spring 한아름 10분거리
조용한 단독주택 2층. 넓은 마스터 베드룸 쓰실 분. 가구완비, 인터넷, 간단한 취사
240-543-6427

애난데일 한강근처 타운홈 방세놓음
전화: 571-699-9707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5분거리
Fairfax VA, 방1칸, 직장인 환영
703-419-0337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인터넷, 방 1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

Fairfax/Burke NOVA, GMU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문자 바람)

단독주택 2층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
별도/ 주차/샤워별도, 남자분 / 금연자
29번과 198번 사이 메릴랜드 버튼스빌
240-413-2738

MD 렌함지역 조용하며 교통편리
직장인을 원함. 즉시 입주 가능함.
방세 저렴, 큰방1, 작은방1
301-379-9660

애난데일 노바대학 근처 방렌트 (방1개)
깨끗하고 조용한 고급스러운 집
학생, 여자분 환영.
703-336-3283

노스 포토맥, NIST 근처 싱글홈 반지하
출입문 별도, 넓은 거실,부엌,화장실,
빨래방, 직장여성구함, 인터넷포함
301-520-2916

센터빌 H-마트, 하이스쿨 각 5분 거리
방 세놓음, 여자분 환영.
703-507-1180(문자 요망)

애난데일 방 1, 샤워실, 출입문, 간단취사
주차 편리, 즉시입주. 금연자
571-243-6295

DC 출퇴근 매우용이. 395 exit 근처
집앞에 펜타곤 가는 무료버스 10분 간격.
가구 가전 완비. 여성분·금연자 환영
240-477-3232

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2, 큰거실,
큰부엌, 화장실
571-525-4220(mr. 권)

애난데일 한 공간에 방, 욕실, 키친이 꾸며져 있고 침대, 책상, 냉장고, 전자렌지 구비
571-232-6052

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별도.
금연자, 그랜마트6분 롯데 11분, 오래계실 분
702-622-8853

애난데일 H- mart 옆 방1 세놓음
인터넷, 가구일체, 취사가능,
직장 다니는 남자 환영. 즉시 입주 가능.
703-975-0123

MD 렌함지역. 조용·교통편리 , 직장인 원함.
즉시입주가능. 방세저렴, 큰방1, 작은방1
301-379-9660

애난데일 H-mart 뒤 콘도. 화장실 딸린 큰방
703-300-8669

방 하나 렌트. 주차장 충분, 출입문 따로.
571-237-3411

Fairfax GMU 근처 Townhouse 에 방렌트
욕실 가구완비 $800 여 학생 직장인
703- 981-7615 (문자)

알렉산드리아 킹스타운 콘도 렌트 $750
방 1, 취사 세탁 가능, 남자분 환영
703-403-7757

〈사무실/점포 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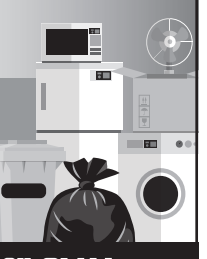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싱글홈 (단층 구조) 추천
$495,000
1층(방3)과 반지하(방1, 화1)에 각각 방, 화장실 보유
I-66 Highway에 근접, 교통 편리한 지역
병원, 샤핑몰, 그로서리 등 근린생활 용이

1층 콘도 (시니어 생활 편리)
$350,000
방2, 화2, 1,200 스퀘어,
여유로운 주차 환경,
저렴한 콘도피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지?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지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애난데일 한강뒤쪽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Wifi 제공
703-835-7404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부동산 매매

〈싱글/타운/콘도 매매〉

1.Coming Soon 애닌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방4, 화 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2.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샤핑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샤핑몰,
1,500 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랜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 입니다
▶ 571-421-086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 975-7718

1. 메릴랜드 자이안트옆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 $9,500/렌트 :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리쿼 비지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2400/SF
1.2층.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메릴랜드 중심에 9 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 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 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 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메릴랜드 자리집힌
고급 흑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은퇴 Good location.
얼터레이션 가능한 분, 세탁소 오너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 매상 4천
렌트 $525(전기료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 바람)

기타

치과 임플란트 : $1,000
임플란트 크라운 , 별도 :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염가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써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웰터C
· 시간 : 일요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워킹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 으로 돌봐 드림.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촌 2분거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 보호자 봉사 하실 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 들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봉사 바랍니다.
▶문의 :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타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싯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 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중고품/기타 매매〉

에어콘디션 4대 팝니다. 6개월 사용했음
6.000 /8.000 / 10.000 / 12.000 (포타블 이동식) 새 것과 다름없음. 전부 $ 250
703-635-9998 메세지 주세요(챈틀리)

고향동산 중앙에 있는 모지 2자리 팝니다.
571-365-6757

-거실용 대형 카펫트 $1000
-도자기 꽃병(4세트) $100
-교자상 2개(정사각형, 직사각형) $100
-손수 만든 화장대 $100
703-401-9905

피아노(Everett) Free로 드립니다.
필요한 분 문자 주세요.
Tel.571-668-0805

허리 운동하는 꺼꾸리 싸게 팝니다
사용설명서 있음 $50
240-477-3232

골프채 판매
- 드라이버 9.5도 315cc
- 아연 닉센트 4—9 S P번까지 8 개
- 던랍 (스페인제)3—9 P S 7개
- 요넥스 6—9 PN 6 개
240-475—4166

2024년형 Hyundai Tucson 5700마일
유학생 귀국사정으로 매매 $27000
상태 최상
703-989-9828

귀국관계로 빅세일
런닝머신$150, 이탈리아 가죽 쇼파 3명 $200, 등산 배낭 신발 , 스틱, 알카라인 싱크대용 정수기 기타 등등
703-597-8909

골프채 아이연 삿 Surpass 3--9번까지 7채
NICKENT 4--9,P, S 9채
240-475-4166

중고 승용차 삽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 분은 연락 바람
240-796-0093

Moving Sale 가격파괴 세일
안마의자 $950 (Reg. $5500), 운동기구, 자개장, 냉장고, TV 및 여러 가지 가정용품 등 이사관계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매
240-274-4945

Used 정품 혼마 드라이버, 아이언셋을 좋은 가격에 팝니다.
드라이버 : 베레스 4 스타, Regular, 9.5도
아이언셋 : 베레스 3 스타, Regular, 5-11, SW (8개)
301-526-7000 로 전화 or 문자 주세요.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Out), 덱 메인터넌스와 클리닝,샌딩,파워워시,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모든공사,주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wani6811
▶571-331-6811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제인 최 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융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융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L&B UNIVERSAL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히팅,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워킹쿨러,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석〉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팀샴푸,살균,소독,냄새및 얼룩제거 ,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키친 리모델링,온수,히터 디쉬워셔,Disposals,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변기,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GAS공사,히팅, 에어컨,냉동
집 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귀국 이삿짐 포장이사,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귀국, 해외,타주, 시내 이사,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안전,신용,저렴 ,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타주,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핫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부엌
▶571-338-0977

H.P.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Window
상점,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Door 설치 , MD/VA/DC 지역
▶703-346-5962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깍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www.koreadaily.com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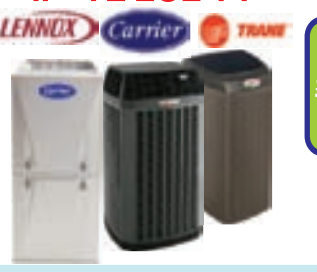
오래되고 잦은 고장이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덱, 마루, 캐비넷 샌딩 보수
- 플로밍. 핸디맨 써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RADON GAS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해외 이사
타주,시내 이사
귀국,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팩션 도와드림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림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Nest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 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전기 공사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 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융 자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24시간 출장가능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703.909.0988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힛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 부엌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최상의 브러쉬 발큼 에어덕트 크리닝
▪파워 풀청소 (덱,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 시공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 /Vinyl)
•LVT(Luxury Vinyl Tile)
•VCT(Vinyl Commercial Tile)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덤불,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융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for the most part; 대부분, 십중팔구는

(Katherine is talking to her friend David…)
(캐서린이 친구 데이비드와 얘기를 나눈다…)

Katherine: How was Erica's party on Saturday?
캐서린: 토요일에 에리카의 파티는 어땠어?
David: It was okay.
데이비드: 무난했어.
Katherine: Just okay?
캐서린: 무난하기만 했어?
David: For the most part it was good.
데이비드: 대체로 좋았어.
Katherine: What didn't you like about it?
캐서린: 뭐가 마음에 안들었어?
David: The food left a lot to be desired.
데이비드: 음식이 좀 아쉬웠지.
Katherine: The food was bad?
캐서린: 음식이 안 좋았어?
David: Yes. And the music wasn't very good. Erica doesn't know how to throw a party.
데이비드: 응. 그리고 음악도 별로였어. 에리카는 어떻게 파티를 여는지 몰라.
Katherine: That's too bad.
캐서린: 그거 안됐네.
David: I should have brought my CDs. That would have livened things up.
데이비드: 내 CD를 갖고 갈 걸 그랬어. 그랬으면 분위기가 살았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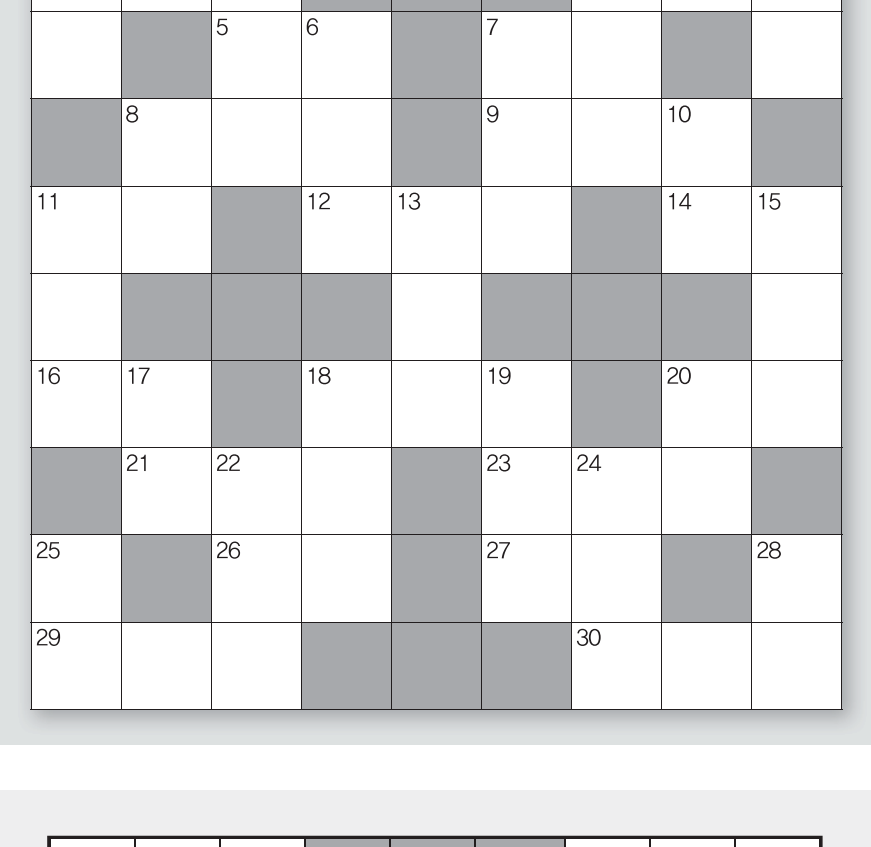
기억할만한 표현

▶ (something) leaves a lot to be desired: (무엇에) 아쉬운 점이 많다.
"That movie wasn't very good. It left a lot to be desired."
(그 영화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 throw a party: 파티를 열다.
"Mary is going to throw a party for her sister. It's her birthday."
(메리가 여동생에게 파티를 열어준대요. 생일이거든요.)

▶ liven things up: 분위기를 띄우다.
"Jim is bringing Chinese food to the poker game. That should liven things up."
(포커 게임을 하는데 짐이 중국 음식을 가져왔어요. 덕분에 분위기가 떴지요.)

낱말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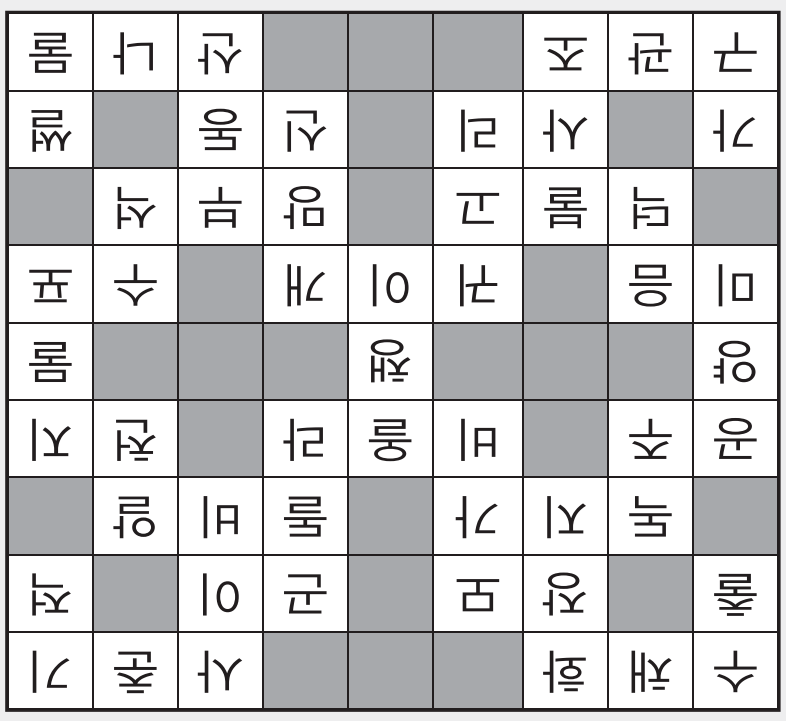


가로열쇠

(1)물감을 물에 풀어서 그린 그림 (3)이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춘정(春情)을 느끼게 되는 시기 (5)아내의 어머니 (7)물고기의 뱃속에 든 알이나 새끼 (8)사회사업 등에 마음을 써서 협력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 (9)매우 가파른 돌의 언덕 (11)백설~. 인어~. 라푼젤. 엘사. 안나. 신데렐라. 모아나. 소피아… (12)바이올린보다 조금 크고 첼로보다 작은 현악기. 리처드 용재 오닐은 한국에서 ~의 위상을 높인 연주자다. 그가 연주한 <섬집 아기>를 듣다가 울 뻔했다 (14)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호수 (16)한글의 다섯째 자모인 ㅁ의 이름 (18)귀지를 파내는 기구 (20)물거품 (21)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음. 남에게 덕을 베풀며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됨 (23)멀리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 그대로 죽어 화석이 되었다는 전설적인 돌 (26)국수, 새끼, 실 따위의 뭉치를 세는 단위. 라면 ~ 하나 추가 (27)재주와 지혜가 남달리 뛰어난 아이 (29)사람의 말을 잘 흉내 내어 애완용으로 사육되는 새 (30)산에서 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이나 나뭇잎

세로열쇠

(1)국내의 상품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냄 (2)휴지 (3)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 (4)기차나 배에서 증기를 내뿜는 힘으로 내는 경적 소리 (6)사당패 따위의 우두머리 (7)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명물인 작은 배 (8)한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 피아노 ~ (10)재산 가운데 가장 값나가는 물건. 음식 가운데서 제일 맛있는 음식 (11)부처 앞에 바치는 쌀. ~ 삼백 석 (13)차츰 자라서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개구리가 되지요 (15)온갖 종이를 파는 가게 (17)조상의 덕. 부모나 다른 사람이 돌보아 주는 보호나 혜택. 조상의 ~으로 그 집안은 자손이 계속해서 번성했다 (18)귓불에 다는 장식품 (19)명예나 위신을 아주 크게 망침.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가 ~을 당했다 (20)등급이나 직위 따위에서 맨 윗자리. ~ 비서관 (22)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전설의 새.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에 빠져도 굴하지 않고 이겨 내는 사람 (24)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토지나 건물, 수목 따위 (25)집안 살림에 쓰는 기구. 침대는 ~다 (28)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일. ↔밀물



스도쿠

	4				3		2	
	5		6	7	2	1		4
	2		8	4		3	6	
9	1		7	3		2	8	
							3	
2			1					6
5		6				6		
4		3		1		9		
			5	9		7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6	4	1	9	5	3	8	2	7
3	5	8	6	7	2	1	9	4
7	2	9	8	4	1	3	6	5
9	1	4	7	3	5	2	8	6
8	6	7	4	2	9	5	3	1
2	3	5	1	6	8	4	7	9
5	7	6	3	8	4	9	1	2
4	9	3	2	1	7	6	5	8
1	8	2	5	9	6	7	4	3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 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 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CVS : (카드 뒷면 3자리)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애틀랜타	기타 지역
매매	구인	구인

뷰티서플라이
텍사스 달라스 백화점 몰내
가$25만, 주인직접매매
4,700sf, 렌트$7,000(UT포함)
(254)652-1867
beautyworlddenton.com

이민생활의 나침판
안내광고
(213)368-2525

일본식당 구인
*데빵 쉐프 0명
*스시 쉐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걸어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251)968-2525
(256)653-1970

한식당
경험자 우대
숙소제공 가능
연봉 협의후 결정
오레곤주 포틀랜드
(971)451-9022

성실하신분
컨비니언스토어
*루이지애나주
(504)430-8426
(504)373-2163

꿈을 위한 도약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수선 기술자 급구
Speed Alteration
일감풍부, 연인컴10~12만
부부팀 환영, 숙박가능
배우면서 일할수도 있음
4551 Office Park Dr, Jackson, MS 39206
(213)507-0387

HotDeal.KoreaDaily.com
미주 한인 사회 최저가
온라인 쇼핑몰
HOT DEAL
문의 213.368.261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리

ASK미국 무료상담
ask.koreadaily.com
ASK미국 THE KOREA DAILY
전문지식부터 미국생활까지
온라인 상담합니다!

미주 중앙일보의 전문가 상담코너인 ASK미국에서는 상담을 도와주실 각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를 모십니다.
ASK미국에서 유능한 전문가를 모십니다!
전문가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askusa@koreadaily.com로 메일 주세요.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한인 업소록 + 뉴스 통합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매달 대치마 산맥
천종산삼
Up to 40%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홀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풀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뼛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 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의학박사 서영수

명품 야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 ~~$5500~~ → $170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력사단 50% 특별할인가
Tel.213.38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Nation Wide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에??!!
미주 전지역의 광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The JoongAng Los Angeles
The JoongAng Chicago
The JoongAng New York
The JoongAng Washington DC
The JoongAng Atlanta

햇살처럼 따뜻한
대한민국 최고의
온열매트 명가(名家)
부동의 1위 일월

일월
북미주 일월 총판업체
213.985.4200
www.ilwoulusa.com

올 겨울 마지막 찬스를 잡으세요! (선착순 50분)
www.ilwoulusa.com

품질대상 9년 연속 대상 |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1위 | 대표 브랜드 대상 | 한국 온열매트중 일월만 인증 UL® | 찜질방 효과 탄소열선 원적외선 방출 | 전자파 걱정없는 무자계 탄소 열선 | 물세탁 가능 | 15시간 후 자동 전원 차단 | 좌우 분리 난방 (2인용) | 화재 걱정 없는 7중 안전 장치

탄소 원적외선 벨보아원단 기모 극세사 워셔블 온열매트
트윈 ~~$329~~ | 퀸 ~~$379~~
트윈 $229 | 퀸 $279

탄소 원적외선 향균원단 에어로실버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269~~ | 더블 ~~$299~~
싱글 $169 | 더블 $199

탄소 원적외선 100% 천연섬유 프리미엄 텐셀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309~~ | 더블 ~~$359~~
싱글 $219 | 더블 $259

탄소 원적외선 특수코팅 방수 온돌마루 카본 카페트
중형 ~~$385~~ | 대형 ~~$465~~
중형 $335 | 대형 $415

모터없이 자연순환방식 숲속애 온수매트
트윈 ~~$349~~ | 퀸 ~~$419~~
트윈 $299 | 퀸 $369

편리한 쇼파용 온열매트
~~$129~~
$79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멕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멕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문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